metro®
메트로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제2996호 www.metroseoul.co.kr

IT p/12



생체보안기술에도 한류바람

Sports p/22



이근호 불운 털고 신데렐라로



골이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예선 첫 경기가 치러진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1만8000여 명의 응원 인파가 몰렸다. 새벽부터 거리에 나와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던 시민들은 후반 23분 이근호의 선취골이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손진영기자 son@

몸 풀린 태극전사 16강 보인다

자만 러시아에 대포알 중거리슛으로 매운맛 안겨
23일 알제리전서 다시한번 붉은악마들 함성 듣자

한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원정 8강을 향한 첫 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 브라질 쿠이아바의 판타나우 경기장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내심 월드컵 4회 연속 첫 경기 승리를 원했지만, 지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던 홍 감독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다.

승점 1을 획득한 한국은 이날 알제리를 2-1로 꺾은 벨기에(1승·승점 3·골 득실+1)에 이어 러시아와 함께 H조 공동 2위를 기록했다. 1차전에서 16강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했다.

대표팀의 발걸음은 경기전 그라운드에 들어올 때부터 가벼웠다. 기성용이 중원을 지휘하며 여러 차례 예리한 패스를 공급했고 초반부터 러시아 수비진을 압박했다. 경기 초반 손흥민은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아크 부근까지 치고 들어가 슈팅을 날리는 등 날카로운 공격으로 상대를 위협했다.

"한국 선수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고 자만하던 러시아는 한국이 다양한 공격 전술로 공세를 퍼붓자 공수에서 실수를 하며 당황한 기색까지 보였다.

한국은 전반 종료까지 공 점유율 55%로 러시아에 앞섰고 전반 종료 전 15분 동안은 76%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 같은 기세는 후반까지 이어졌다. 후반 11분 박주영을 대신해 들어간 이근호는 교체된 지 12분 만에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슛을 날렸고, 상대 골키퍼 이고르 아킨페예프는 정면으로 공을 받고도 이를 골대 안으로 흘러보내버렸다.

한국은 우세한 경기 속에서도 후반 29분 골대 앞 혼전 상황에서 알렉산더 케르자코프에게 골을 내줘 아쉽게 승리를 지키지 못했다.

◆ 2차전도 홍명보 각본대로

선제골을 넣고도 비겼기에 짙은 아쉬움이 남지만 16강 진출을 향한 희망은 아직 온전히 남아있다. 이제는 갓 만든 불씨를 나흘 뒤 열리는 알제리전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일만 남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는 잘 짜인 계획임을 보여줬다. 한국의 자신감은 홍명보 감독을 향한 믿음에서 나왔다"고 평가전 때와 달라진 한국의 전력을 호평했다.

무엇보다 튀니지·가나와의 평가전 2연패로 저하됐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세에 돌입해 알제리전은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의 기운이 선수들 사이에 감돌고 있다.

정성룡은 "알제리는 장점이 많지만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했고, 이청용은 "우리는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큰 자신감을 얻었다. 알제리는 우리가 못 이길 팀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성용도 "우리가 최근 연패해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오늘 러시아와의 경기가 반전의 계기가 됐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길 수 있는 경기라서 아쉽다"며 "알제리와의 2차전에서는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베이스캠프인 이구아수로 돌아온 대표팀은 이틀간 훈련을 한 뒤 첫 승을 향한 결전지 포르투 알레그리로 건너가 두 차례 훈련을 소화한다. 알제리전은 23일 오전 4시 포르투 알레그리의 베이라히우 주경기장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3·22·23면>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朴대통령, 문창극 임명동의안 귀국 후 검토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오는 21일 귀국 이후 재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18일 박 대통령의 첫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로 출발하기 직전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은 귀국한 뒤 총리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구서의 재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순방 중에는 중요한 외교·경제 일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귀국 이후로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의 재가를 미룬 것은 순방 중에 정상 외교에 집중하는 동시에 시간을 두고 문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나 민심의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귀국 후 재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 자체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남게 됐다. 박 대통령이 재가를 한다고 해도 주말과 휴일을 거쳐야 국회에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르면 23일이 가장 이른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현정기자 jhj@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메트로신문 월드컵 특별판 배포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과 러시아의 H조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리는 18일 오전 메트로 배포 도우미가 월드컵 응원을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메트로 월드컵 특별판을 배포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설익은 K-팝 기반 흔들 수도



기자 수첩

양 성 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아시아 전역으로 K-팝 열풍이 거세다'는 표현은 이제 새삼스러울 정도다. 인기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K-팝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배 그룹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빅뱅, 2EN1, 카라 등이 글로벌 활동을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가요계 움직임을 보면 K-팝 열풍을 안심하고 지켜봐서는 안 된다. 과거 국내 가요무대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뒤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그대로 호황 속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설익은 풋과일이 문제가 된다'는 말처럼 신인 아이돌 그룹들이 국내 무대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검증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서 데뷔전을 치르고 있다. 물론 오랜기간 연습생 시절을 보내면서 어느정도 실력을 갖출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수년간 수백 번의 무대경험으로 내공을 쌓은 선배 그룹의 실력을 넘어설 수 없다. 특히 화려한 퍼포먼스와 가창력을 갖춘 K-팝 무대를 응원해온 해외 팬의 눈 높이를 맞추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K-팝 열기를 이용해 신인 아이돌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K-팝은 물론 해외 팬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며 "K-팝이 해외에 자리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한번 떠난 팬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K-팝 열기로 해외 진출 문턱이 낮아졌지만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다 K-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뉴스&뉴스

해병대, 몽골 '칸퀘스트' 훈련 참가

● 해병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칸퀘스트' 연습에 참가한다고 18일 밝혔다.

몽골군이 주관하고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후원하는 이번 연습에는 몽골·한국·미국·중국·체코·인도네시아 등 21개국 1200여 명이 참가한다. 한국군은 해병대 장병 34명 외에 육·해·공군 8명이 참가, 재해·재난 대비 지원 활동 등을 숙달할 예정이다.

새누리, 정책위 부의장에 강석훈 의원

● 새누리당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안종범 전 의원이 맡아왔던 정책위부의장 자리에 강석훈 의원을 18일 내정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안 의원 후임으로 강 의원을 정책위부의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 "유병언 검거, 최선 다하겠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전 검찰력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18일 국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울산항만公 사장 등 2명 해임건의

공공기관 평가…부채 과다 6곳 성과급 50% 삭감

정부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의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또 부채가 과도한 공공기관 중 자구 노력이 미진한 6곳은 임직원의 성과급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7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은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였다.

정부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 동서발전,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6개 기관은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실적 부진과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이번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면서 "올해 중간평가나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굳은 표정의 문창극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출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물러날 사람에게 질문 않겠다"

맥빠진 국회 대정부질문

"물러날 예정인 총리나 국무위원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18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미 사의를 밝힌 국무총리와 퇴임이 예정된 국무위원들 앞에서 다소 맥빠진 모습으로 진행됐다.

일부 의원들은 총리에게 질의할 내용을 퇴임하지 않는 다른 장관에게 질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핵심 주제인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에 대해 "현직 총리가 차기 총리 후보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총리나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듣기보다 자신의 정견을 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꼽혔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권력을 대통령이 다 갖고 있는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가 총리를 불신임하면 내각이 총사퇴하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을 해체한다는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잡지 못하는 경찰도 해체해야 하나"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물러나는 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 저도 참담하다"면서 "문 총리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그 중심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 총리가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비서실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공세를 폈다.

/김민준기자 mjkim@

"한·일 관계 중재역 맡겠다"

리퍼트 주한 美대사 지명자…대북 3대 기조 지속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17일(현지 시간)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리퍼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 "만일 인준이 된다면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국무부와 협의해 한·일 양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미국은 그 동안 한·일간 관계 개선을 독려하면서도 양국의 과거사 갈등이 주권적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개적으로 중재 역할을 맡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었다.

리퍼트 지명자는 "우리는 한·일 양국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거사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도록 독려해왔다"며 "지난달 말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밝혔다.

리퍼트 지명자는 북한발 안보 위협과 관련, 3대 대북접근 기조로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는 국제적 컨센서스 조성 ▲다자 또는 독자제재 지속 ▲강력한 국방력과 대북 억지력을 제시했다. /조현정기자 jhj@

전국이 "대~한민국" 함성

'붉은 악마' 거리응원 물결…교민들도 각지서 모여 열기 동참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4 브라질월드컵 조별예선에서 러시아와 첫 경기를 치른 18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은 물론 교포가 사는 세계 곳곳이 '대~한민국'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서울 광화문광장(1만8000여명)과 영동대로(2만4000여명)를 비롯해 대전 월드컵경기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전국 20여 곳에 거리응원 인파가 몰렸다. 일부 지역에는 간밤에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붉은 티셔츠를 입은 시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에서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거리응원에 나선 시민은 후반 23분 선취골이 터지자 환호성을 지르는 등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서로 손뼉을 부딪치며 키스를 나누는 연



인들도 있었다. 외국인도 상당수 응원대열에 가세했다.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서도 '대~한민국' 함성으로 뒤덮였다. 미국 최대 교민 커뮤니티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한복판인 윌셔대로 라디오코리아 사옥 앞 광장은 붉은 티셔츠를 입은 교민 2000여명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한인식당과 상가가 입주한 웨스턴길 마당몰에도 200여명이 모였고, 다운타운에서는 한인 월드컵 응원단 '레드 타이거스'가 탐스 여반이라는 식당을 빌려 실내 응원에 나섰다.

워싱턴DC 일대 한인들은 대형교회와 식당 등에 모여 한국팀을 한마음으로 응원했으나 경기가 결국 무승부로 끝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교민들이 밀집한 베이징의 한국국제학교에는 이른 새벽부터 300여명의 초·중·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내 체육관에 집결해 응원했다. 일본에서도 도쿄 요쓰야의 한국 문화원 2층 강당에서 단체응원전을 펼치는 등 곳곳에서 대형 스크린 아래에 모여 대표팀의 선전을 함께 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월드컵 '붉은 미녀' 예감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브라질월드컵 거리응원에서 축구팬이 한국의 선취골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가 도서관은 열공 대학가 기말고사 기간인 18일 오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 열람실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쓰레기 정리 성숙한 응원

월드컵 이모저모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에 모인 거리 응원단은 성숙한 응원 모습을 보였다.

4년 전 독일 월드컵 당시처럼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카퍼레이드를 벌이는 등 과도한 뒤풀이는 찾아볼 수 없었고, 출근길 교통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직접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응원장의 쓰레기를 정리하는 시민들도 늘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표팀 공식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가 경기 직후 쓰레기봉투를 무료 배포하며 "성숙한 응원문화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출근길 지하철 DMB 인기

○…아침 일찍 직장에서 경기를 보려고 자가용을 몰고 출근을 서두른 직장인들로 인해 주요 도로의 정체가 평소 보다 일찍 시작됐다.

경기가 시작된 오전 7시 이후에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DMB로 경기를 시청하려고 대중교통에 몰리면서 버스나 지하철은 평소보다 붐볐지만 시내 도로는 오히려 한산한 모습이었다.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 영동대로의 인도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이 붙어 있었다. 리본에는 '잊지않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벌써 잊으셨나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선 한 여성은 "세월호 참사 이후 뉴스를 보는 것조차 괴롭고 나도 잊고 싶었지만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월드컵에 열광하는 걸 보니 벌써 세월호 참사를 잊은 건 아닌지 걱정돼 나왔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김명수 연이은 논문 표절 의혹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또 불거졌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8일 김 내정자가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교내 학술지인 '교육과학연구'에 논문 두 편을 제출하고서 모두 1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교수들의 연구 장려 차원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논문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교수들에게 연간 500만원을 연구비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전문직적 특성의 교원 보수체계 반영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인식연구'와 '초등학교 단위학교 운영비 배분에 관한 연구'가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의 석·박사 논문을 요약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날 제기된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마찬가지로 제자의 학위논문과 내용이 아주 유사한 논문을 학술지에 내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제자를 제2저자로 올렸다.

/윤다혜기자 ydh@

아시아나 화물기 이륙 전 급제동 '아찔'

17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1대가 이륙 직전 갑자기 활주로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오후 10시 53분께 미국 시애틀행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 화물기가 이륙하려다가 항공기 이상이 감지돼 급정지하면서 활주로 끝단에서 멈췄다"고 18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타이어가 과열돼 뒷바퀴 16개 중 8개가 손상됐다. 화물기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좌측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조종사의 말을 토대로 엔진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2년간 3차례 승차거부 택시기사 자격증 '아웃'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2년 안에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회사는 보유 차량 대비 위반 건수에 따라 처벌받는다. 가령 100대를 보유한 회사의 위반행위가 20건일 때 사업 일부정지 60일에 처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감차와 면허취소에 처한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민준기자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

서울시 노원구는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4800여 건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는 9월에 부과될 2014년 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건강 예방 체험 캠페인' 실시

서울시 송파구는 오는 20일 거원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건강 예방 체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참여 위주의 체험으로 준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눈높이 교육을 실시한다.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구로구는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검사와 상담을 실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재건축조합 돈 함부로 못써!

서울시 표준규정 마련…사업자 등록 의무화·현금 사용 금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 자금을 함부로 빌려주는 등 조합자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표준 규정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조합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통해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간이영수증을 남발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조합은 매년 예산계획서도 작성해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출예산은 사용 목적을 관(운영비)·항(인건비)·목(급여·상여·퇴직금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현금사용도 금지된다. 경조사비 등 부득이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자금 집행은 계좌이체나 카드 사용 등 금융기관을 통해야 한다.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족이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되고, 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은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주민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자금을 개인에게 이체·대여·가지급 할 수 없다.

모든 용역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일반경쟁입찰을 먼저 검토하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30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자금 집행 내역은 분기별로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아휴 힘들어" 1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도소방학교에서 2014년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열려 한 참가 소방관이 무거운 마네킹을 옮기는 체력 테스트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면허증 따려면 친환경 경제운전을

서울 필기·주행시험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에서 친환경 경제운전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운전면허 필기시험 500개 항목 가운데 8개를 차지했던 친환경 경제운전 항목을 이르면 8월부터 50개(전체의 1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8월 학과시험을 개편하고 9월부터 새롭게 문제를 낼 예정이다.

주행시험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대기 중에 기어를 중립에 놓지 않으면 3점만 감점됐지만 앞으로는 5점이 감점된다.

시는 또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할 때 '친환경 경제운전' 십계명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십계명에는 시속 60~80㎞ 유지, 급출발·급가속·급제동 안 하기, 불필요한 공회전 안 하기, 트렁크 비우기 등 내용이 포함됐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시내 등록차량 290만대가 친환경 경제운전을 하면 연 1조700억원을을 아낄 수 있고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도 약 80t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전국 성형외과 강남 집중

성형외과 10개 중 4개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013년 전국 회원 실태 보고서'를 통해 전국 성형외과 개원 전문의가 전년(792명)보다 57.2% 늘어난 1245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개원의 중 58.7%인 731명이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인천 등 6개 광역시 개원의를 더하면 전체 중 81.1%가 대도시에 몰려있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구에만 540명의 개원의가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43.4%에 달하는 인원으로 이 수치는 서울지역 2위인 서초구(98명)의 5배가 넘는 수치다.

/황재용기자



"와~책이 많네"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14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어린이들이 한국 근·현대 책표지들을 귀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도서관, 신용카드로도 회원증 발급

서울도서관이 앞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학생증 같은 다른 카드를 회원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디지털자료실에서 회원가입하면 별도의 회원증을 발급해왔다.

이미 회원증을 발급한 이용자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에 회원증 기능을 추가하고 싶으면 수수료 없이 재발급할 수 있다. /김민준기자



68년 만에 찍은 결혼 사진

metro HongKong

호호백발 커플 '감동'

노부부의 뒤늦은 결혼 사진이 중국 네티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93세의 쩌우허친과 86세의 천춘화는 결혼한지 68년 만에 예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은 1936년 후난성 샹샹시에서 결혼했다. 이어지는 전쟁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 두 사람은 반지도, 사진도 없이 간단하게 식을 올렸다. 국민개혁군 특무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쩌우허친은 부대로 복귀해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신혼의 달콤함을 느낄 새도 없이 헤어졌다.

미얀마 등지에서 참전하고 4년 뒤 쩌우허친이 고향으로 돌아와 마침내 천춘화와 재회했다.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며 살다 쩌우허친은 운전수로 일하게 됐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 손자, 손녀까지 합치면 식구가 20명이나 된다.

자원봉사단체인 레이펑의공단 관계자는 항일전쟁 참전 노병 위문 행사에서 부부를 만났다.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 받은 그는 늦었지만 결혼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했다. 노부부는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데 무슨 사진이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의공단과 가족의 권유에 결국 승낙했다.

지난 12일 쩌우허친과 천춘화는 결혼 사진을 찍기 위해 나섰다. 항상 아내를 위하는 쩌우허친은 이날도 먼저 아내가 옷 갈아입기를 기다렸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아내를 보고 쩌우허친은 연신 "굿(Good)"을 외치며 활짝 웃었다.

쩌우허친이 말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나오자 천춘화는 얼른 가서 남편의 손을 끌어당기며 이야기를 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남편을 위해 현장 상황을 설명해주기 위해서였다.

사진사가 두 사람에게 뽀뽀하라고 요구하자 쩌우허친은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라며 쑥스러워했다. 이때 천춘화가 남편이 볼에 기습 키스를 하며 "여보, 사랑해요!"라고 말하자 현장에는 감동의 환호가 쏟아졌다.

/정리=조선미기자

에이즈 환자도 일반인처럼

metro Brazil

'차별대우 금지법' 도입

앞으로 브라질에서 에이즈 감염환자를 차별 대우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의해 최근 가결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브라질에서 에이즈 환자를 차별하는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예를 들어 교육 기관에서 에이즈 환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 방해할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조항에는 탁아소도 포함돼 보균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새 법안에서는 또한 에이즈



Lei. Discriminar pessoas com HIV passa a ser crime

Os atos de discriminação contra portadores do vírus HIV passam a ser crimes punidos com penas de 1 a 4 anos de prisão. O projeto aprovado pelo Congresso Nacional foi sancionado ontem pela presidente Dilma Rousseff.

A lei, que entra em vigor imediatamente, determina, por exemplo, que será considerado crime recusar, cancelar ou impedir as matrículas em qualquer instituição de ensino, incluindo creches, de portadores do vírus HIV e portadores da doença.

A nova legislação também criminaliza negar trabalho, exonerar ou demitir de seu cargo ou emprego e isolar os doentes no ambiente profissional.

Com as novas normas de combate à discriminação, o Brasil atende a diretrizes internacionais da ONU (Organização das Nações Unidas) na área de direitos humanos. METRO BRASÍLIA

718 mil
brasileiros têm o vírus HIV, segundo dados do Unaids (Programa das Nações Unidas para a Luta contra a Aids).

감염자의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해당 노동자를 격리 시키는 경우도 처벌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브라질은 차별 금지 법안의 도입과 함께 UN의 국제대표들을 초청해 인권 문제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모든게 오바마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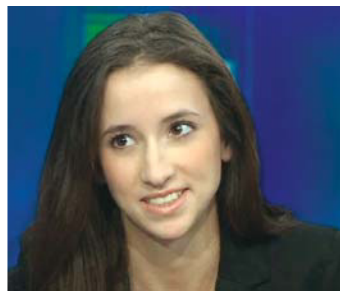
미 명문대 포르노 배우 주장…학비 보조금 못 받자 '실정' 비난

미국 명문대 출신의 포르노 배우 미리암 윅스(19·**사진**)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실정'을 맹비난했다.

윅스는 16일(현지시간) 시사주간지 타임의 오피니언 면에 실린 기고에서 포르노 출연으로 돈을 번다는 이유로 새 학기부터 학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윅스는 지난해 명문 듀크대에 입학했다. 그는 연간 등록금만 4만 4000달러(4500만원), 기숙사비를 포함하면 7만 달러 가까이 되는 학비를 대기 위해 포르노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다. '벨 녹스'란 예명으로 활동하는 그는 성인물을 즐겨보는 같은 학교 남학생의 폭로로 만천하에 신상이 공개됐다.

최근 듀크 대학 측은 윅스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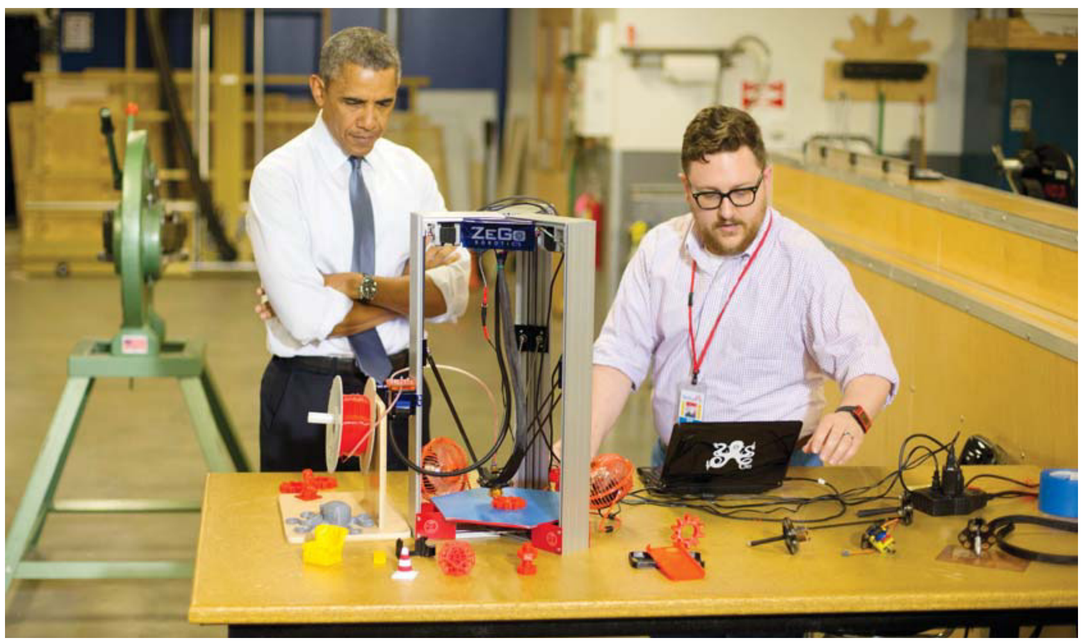


고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 지원을 받고 있다"며 윅스에게 장학금을 줄 것처럼 얘기했다. 하지만 오는 8월 시작되는 1학기를 앞두고 기존에 주던 1만3000 달러의 보조금마저 끊었다.

그러나 윅스는 대학이 정부로부터 받는 등록금 보조가 전무한 상태라면서 듀크대가 아닌 오바마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오바마가 대학에 지원할 세금을 돈 없고 실력도 안되는 학생들에게 퍼주는 바람에 자신과 같은 중산층이 역차별로 고통받는다는 것이다.

윅스는 "많은 사람들이 학비 때문에 포르노에 출연하게 된 내 사정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고지서는 미래 인생 설계와 수학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대학에 가라고 하는 우리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3D 프린터 신기하네 17일(현지시간) 미국 피츠버그주의 '테크숍'을 찾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D 프린터로 모형을 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라크 내전으로 모는 ISIL 어떤 단체?

지난해 암살 1000건 등…기업형 조직 드러나

이라크를 내전 위기로 모는 급진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테러를 판매하는 기업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SIL은 매년 테러와 암살 횟수 등을 공개하는 연례 성과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조직적인 기업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SIL은 지난해 이라크에서 1000 건의 암살, 4000 건의 사제 폭발물 설치 등 총 1만 건의 활동을 벌였다. 급진주의 수감자 수백 명도 석방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ISW)의 제시카 루이스 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ISIL이 군대처럼 작전을 수행하며 국가 건설이라는 포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ISIL은 트위터 등을 활용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세계 각지에 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시리아에서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들이 건설하려는 국가의 원형을 묘사했다. 지난 10일 모술을 장악한 뒤에는 트위터 계정으로 자신들의 사진을 쏟아냈다.

한편 시아파 집단 거주지인 이라크 바그다드 북부 사드르시 시장에서 이날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 최소 1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밝힌 단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시아파 주민을 겨냥한 수니파 무장 단체의 소행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8일>

코스피 1989.49 (−12.06)	코스닥 537.05 (−0.85)
금리(국고채 3년) 2.73 (변동 없음)	환율(원·달러) 1023.00 (+1.50)

LG 'G프로2' 대내외 악재에 '울상'

이통사 영업정지로 발목…갤럭시S5·G2에도 밀려

LG전자의 올해 첫 야심작이었던 전략 스마트폰 'G프로2'가 대내외 악재로 비운의 스마트폰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G프로2'는 이동통신사 영업정지와 G시리즈 후속 모델인 'G3' 출시,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 서비스 시작 등 걸림돌로 인해 판매에 악재를 맞았다.

올 2월 출시된 'G프로2'는 출시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불법 보조금으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를 먹어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초기에 출시 특수가 반영돼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는 효과를 누리기 마련인데 G프로2는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면서 효과도 크게 누리지 못했다.

앞서 전작인 'G프로'가 지난해 국내 출시 4개월 만에 판매량 100만대를 넘는 '밀리언셀러'로 등극한 바 있어 LG전자로써는 기대가 컸지만 대외적인 악재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여기에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에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5'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의 출고가를 86만6800원으로 책정하며, G프로2(99만9900원)와의 가격 차이를 크게 벌렸다. 물론 이 차이는 최근 역전됐다. LG전자는 지난달 G3를 출시하며 G프로2의 출고가를 이달 들어 79만9700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번엔 자사 스마트폰인 'G3'의 출시가 발목을 잡았다. G3는 출시한 지 열흘 만에 15만대를 판매하는 등 호재를 누렸지만 G프로2에게는 '그림의 떡'으로만 보일 뿐이다.

심지어 올해 초 글로벌 시장 판매량도 지난해 출시된 'G2'에게 밀렸다. 앞서 이철훈 LG전자 MC마케팅커뮤니케이션담당 상무는 지난 3월 'G2 스마트폰 자선사진전' 행사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출시된 G2 판매량이 G프로2를 앞선다"며 "G프로2는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출시됐지만 G2는 더 많은 국가에 출시된 영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통3사를 통해 이달 중 본격 서비스될 '광대역 LTE-A' 서비스도 G프로2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LTE에 비해 3배 빠른 속도인 225Mbps를 자랑하는 광대역 LTE-A는 지원 칩셋이 장착된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초기에는 19일 SK텔레콤을 통해 선보일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 LTE-A'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올 상반기 출시된 스마트폰은 순식간에 구형 단말로 전락해 버릴 위기에 처했다. G프로2도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G프로2가 출시 초기 평가가 좋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갖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결국 통신시장에서도 권하지 않는 '비운의 스마트폰'이 돼 버렸다"면서 "올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가 전략을 내세운 LG전자의 방향성이 향후 고객에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이제는 전자책 시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4 서울국제도서전 내 한 업체 매장에서 관람객들이 관계자로부터 전자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세계 주요 23개국에서 출판사 369개사가 참가한 이번 전시는 오는 22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 회장 병세 조금씩 차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병세가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 전무는 18일 수요 사장단회의 브리핑에서 "이건희 회장이 8~9시간 눈을 뜨고 있고, 이야기를 하면 반응도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이 문안 인사차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원을 방문해 호암상 시상식 등 주요 행사나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설명을 들으면 이 회장이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이 회장의 치료에 해외 의료진의 자문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무는 "현재 이 회장 치료를 위해 서울삼성병원 의료진과 해외 의료진이 협조하고 있다"며 "서울삼성병원 의료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있는 해외 의료진에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방식의 치료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10일 밤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뒤 삼성서울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혈관확장시술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이재영기자

금융사기 대학생이 막는다

학생 기자단 운영 사고 예방

금융사기에 눈물 짓는 대학생들이 늘면서 학생들이 직접 사고 예방에 팔을 걷어 붙였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학생 기자단이 각 대학교 내 교지에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칼럼을 적극 게재하면서 또래 대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해 10월 한양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각 대학교의 학교 신문에 금융사고 예방 관련 칼럼을 기고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5회 이상 게재된 학생기자단 기고에서는 ▲취업준비생 울리는 대출사기 ▲금융당국 사칭 피싱사기 ▲등록금 대부업 대출 피해 ▲개인정보 유출 ▲MS카드에서 IC카드로의 교체 이유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금융사고 유형을 소개했다.

현재 대학가의 금융사기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을 미끼로 가공의 증권투자 선물회사를 만들어 청년 구직자와 대학생들에게 대출을 받아오게 만든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7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대다수가 29세 이하의 청년이었다.

또 등록금 마련을 위해 섣불리 대부업체를 찾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 문제도 심각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금융사기에 취약한 면모를 보인다"며 "금리에 대한 이해 등 금융지식 수준이 의외로 높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11월 1기로 출범한 금감원 대학생 기자단은 지난해 8기~올해 9기 대학 신문으로 활동 보폭을 넓혔다.

기존 인터넷 공식 블로그 활동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대학생과의 접점을 보다 직접적으로 확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기자단의 활동을 통해 또래 대학생들이 자극을 받아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뉴스&뉴스



건강 간식과 함께 응원 농협유통은 22일까지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건강간식과 함께 태극전사 응원'이라는 주제로 건강 간식전을 진행한다. /농협유통 제공

직장인 97% "이민가고 싶다"

● 직장인 10명중 9명 이상이 이민을 가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1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회원 725명을 대상으로 '이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4%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개선되지 않는 대한민국 내 직장 문화'가 34.8%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사회에 대한 불만(30.5%)',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도전감(19.5%)'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민을 준비 중인 직장인은 32.8% 불과했다. 이는 문화적 차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국명기자

유연근무제 노년층에 집중

● 시간제 근무, 자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가 노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10월 전체 임금근로자 1848만9000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임금근로자는 297만명(16.1%)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유형으로 보면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하인 시간제 근로가 66.7%로 가장 많았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12.1%),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는 선택적 근무시간제(8.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60세 이상은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이 33.7%에 달해 15~29세(19.4%), 50대(15.2%) 등 보다 훨씬 높았다. /이국명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선정 – 동부화재

동부화재

운전중 교통상해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 –

생명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시
3억원 일시금 지급
(특약 가입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14등급(**5만원**)~1등급(**400만원**)**지급**
(특약 가입시)



매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는 않나요?

갱신·할증없이
월 11,990원
(20년 만기 20년 납, 월납, 자가용운전자 기준)



갱신없이~할증없이~
이 보험 하나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피해자 사망/중상해, 중과실사고시, 특약가입시)

정식기소시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특약가입시)

법원판결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특약가입시)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종합보험 1404

● 보험료 예시

[20년만기 20년납, 월납, 자가용운전자기준, 단위 : 원]

구분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30세남	보험료 30세여	보험료 40세남	보험료 40세여	보험료 50세남	보험료 50세여
보통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보통약관)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1,000만원	102	71	102	71	102	71
특별약관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일시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만원	4,350	2,190	4,350	2,190	4,350	2,190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554	704	554	704	554	704
	자동차부상치료비 II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별 5만 ~ 400만원 지급	400만원	1,656	734	1,656	734	1,656	734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중대법규위반사고)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3,000만원	2,275	2,274	2,275	2,274	2,275	2,27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만원	117	117	117	117	117	117
	벌금(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00만원	293	293	293	293	293	293
보장보험료 합계				9,347	6,383	9,347	6,383	9,347	6,383
적립보험료 합계				2,643	5,607	2,643	5,607	2,643	5,607
납입보험료 합계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예시보험료는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6종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6종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20년만기, 20년납, 상해1급,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월납11,990원, 단위 : 원, %]

경과연수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률) 최저보증이율 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환급률	표준이율 환급금	표준이율 환급률	표준이율 × 1.2 환급금	표준이율 × 1.2 환급률
1년	143,880	–	0.0%	–	0.0%	–	0.0%
3년	431,640	45,230	10.5%	47,250	10.9%	47,450	11.0%
5년	719,400	100,310	13.9%	106,040	14.7%	106,630	14.8%
7년	1,007,160	156,990	15.6%	168,550	16.7%	169,750	16.9%
10년	1,438,800	246,050	17.1%	271,290	18.9%	273,970	19.0%
16년	2,302,080	436,460	19.0%	511,380	22.2%	519,690	22.6%
20년	2,887,600	573,050	19.9%	701,170	24.4%	715,780	24.9%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1.5%), 「표준이율(3.5%)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및 「표준이율×1.2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304(월변동금리, 2014년 04월 현재 3.7%)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304)을 적용하여 산출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만 받으셔도
불스원 3종세트 무료증정
경품제공_(주)동부화재 해상보험
경품증정대상_전화 상담고객(단,1인 1회에 한하여 지급)





080-249-7000

•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철회가능하며 계약 청약 이후 보험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 등 비례보상 담보의 경우 이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0614호(2014.3.31)〉



롯데마트, 워싱턴 빙(BING)체리 18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워싱턴 빙(BING)체리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25일까지 당도가 높고 알이 굵은 워싱턴 빙체리 1팩(450ｇ)을 60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자동차 할부금융 잡아라

캐피탈사 전유물 상품 신한 등 시중은행 도전

주요 시중은행들이 틈새시장 개척에 나서면서 '고유영역'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캐피탈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동차대출 상품이 최근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 은행권의 사업 다각화로 '고유사업'은 옛말이 돼 버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자동차대출 통합 브랜드인 '신한 마이카'를 출시하고, '자동차 금융의 명가'라는 슬로건도 발표했다. 기존에 출시된 다양한 자동차대출 상품을 모두 공통된 브랜드로 통일하면서 자동차 금융시장의 선두자리를 다져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할부금융사의 전유물이었던 자동차 금융 시장에 은행권 최초로 뛰어들었다. 첫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의 판매 실적은 총 8만3976계좌, 1조3571억원에 달한다. 은행권내 자동차금융시장에서도 압도적 1위다. '마이카 대출' 상품의 장점은 낮은 금리와 근저당 설정이 없다는 점이다. 본인 소득만 있으면 기존 신용한도와는 별도로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마이카 대출'을 선보인 이후 중고차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한 마이카 중고차대출', 타 금융회사에서 고금리 자동차 할부금융을 사용 중인 고객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한 마이카 대환대출' 등을 출시했다.

농협은행은 자동차 구입자금 전용 대출상품으로 '채움 오토론Ⅱ'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자동차 구입자금이 필요한 재직·소득 증빙이 가능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도와 연소득 등에 따라 무보증 신용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신차(전 차종)이며 대출기간과 상환 방법은 1년 이상 5년 이내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고객이 거치기간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대출금리는 지난 8일 현재 최저 연 5.04%까지 적용 가능하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부터 캐피털까지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면서 "자동차의 경우 자산이 우량하고, 안정적인 데다 시장 규모 자체도 크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정보유출 1건도 엄벌

금융당국 제재 강화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금융사의 정보유출이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린다. 정보 유출은 단 1건만 발생해도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제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금융사 직원이 3년 안에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원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1건 이상만 돼도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50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500건 이상은 업무정지(정직) 이상이다.

개인신용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는 제재가 더욱 심해진다. 1건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견책), 5건 이상은 문책경고(감보), 50건 이상은 업무정지(정직) 이상이다.

'꺾기' 규제의 경우 기존 적립식과 거치식으로 나눠 제재하던 것을 수취 비율 등으로 바꾼다.

꺾기 수취가 50건 이상이고 위반 점포 비율이 10% 이상이면 기관 경고, 30건 이상이면 기관 주의를 받는다.

보험·공제·펀드·월급 비보장금전 신탁의 경우 꺾기 수취 비율이 월 3% 이상이면 감봉 이상, 1% 이상~3% 미만은 견책, 1% 미만은 주의 조치를 받게 된다.

/김현정기자 hjkim1@



"브라질 원두커피 즐기세요" 이마트가 25일까지 원두커피 베스트셀러 브라질 세라도 원두커피를 기존 가격보다 2000원 저렴한 1만59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전업주부 어디로 갔나…

11개월째 감소…700만명 붕괴 눈앞

고용시장에 나오는 여성들이 급증하면서 전업주부가 11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가사와 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인구는 70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19만1000명) 줄었다. 이 같은 감소폭은 같은 기간 비경제활동(비경) 인구의 전체 감소 규모(16만2000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가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집에서 가사를 돌보거나 돌볼 책임이 있었던 사람을, 육아는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둘 다 전업주부 성격이기에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인구에 속한다. 이로써 전업주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로 11개월째 줄었다. 지난 2004년 2월까지 14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이후 최장 감소세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에 따라 구직자가 늘어난데다 정부가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정책적으로 독려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실수로 송금된 돈 바로 통보된다

금감원 고객통지 관행 개선

직장인 이지은(29·여)씨는 최근 월세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하려고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실수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말았다.

자신의 착오를 알아챈 이씨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했지만 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돈을 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씨의 경우처럼 실수로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통지 관행 개선' 등에 따르면 계좌이체 시 은행은 돈의 이동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잘못 송금된 돈은 원칙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다만 수취인은 법적으로 자금 이체를 할 '법률관계'가 존재하지않기 때문에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생기며 만일 수취인이 이씨의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에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줄 때까지 보관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체가 잘못 이뤄진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연락이 안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는 은행측에도 직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이를 즉시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송금 오류 정정 시 고객 통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은 계좌이체 거래 시 고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에만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반환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자행 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고 타행 송금 정정 시에는 입금 은행이 입금 의뢰인에게,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에서 유선전화·SMS·이메일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정정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에 인자해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IT업계 붉은 아이템 열풍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 '월드컵 패션'





브라질 월드컵을 맞아 IT 제품에도 붉은 악마 열풍이 불고 있다

무난한 무채색이 주류를 이루던 신제품 색상에 빨간색이 대거 등장하는 것이다. 감각적이면서 고급스런 붉은색 안료 개발과 소비자 취향 변화 속에서 빨간색 디바이스는 붉은 악마의 색다른 패션 아이템이다.

전국 광대역 LTE-A 시대를 맞아 출시되는 갤럭시S5 광대역 LTE-A는 기본 색상 이외에 빨간색(글램 레드)과 분홍색(스위트 핑크) 단말기를 새롭게 선보인다. 전작 갤럭시S5에서는 볼 수 없던 붉은 계열 제품이다.

붉은색 단말기는 팬택 베가 아이언2(위 사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베가 아이언2 블랙레드와 로즈핑크 제품은 다른 색상과 달리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구입 문의가 쇄도한다. 팬택은 '빨간색은 모든 색깔의 왕'이란 괴테의 명언을 카피로 삼은 텔레비전 광고도 대대적으로 송출 중이다.

팬택 관계자는 "블랙레드 색상 선호도가 제일 높다, 아이언 케이스 색깔도 붉은 계열이 인기"라면서 "고급 이미지가 강한 IT제품은 빨간색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붉은색도 얼마든지 세련되고 우아하게 디바이스로 표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트북과 태블릿PC 시장에도 붉은 바람이 분다.

일명 '천송이 노트북'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아티브북 9 라이트(아래)는 블러시 핑크 색상으로 여대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책상에 오래 놓고 쓰는 노트북은 주로 검은색과 흰색으로 시장에 나왔지만 젊은 소비자를 겨냥한 화려한 색상 제품 출시는 이제 트렌드가 됐다.

최근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MS) 태블릿PC 서피스2는 탈부착이 가능한 컬러 키보드 '타이핑 커버'로 시선을 끌었다. 특히 핫핑크와 자주색 커버는 서피스2 출시 전부터 화제가 됐다. 추후 MS는 서피스 프로 버전의 짙은 빨간색 타이핑 커버를 선보일 예정이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500인분 국 30분만에 1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식품대전에서 관람객이 국·튀김·볶음 요리 겸용 만능국솥을 살펴보고 있다. 500인분을 한꺼번에 요리할 수 있는 이 국솥은 물을 100도 끓이는데 30분만에 가능하다. /연합뉴스

데이터족 '무제한 요금제' 소량 통화족 '알뜰폰 가입'

통화패턴 알면 요금 절감

조금만 알아보고 따져봐도 맞춤형 서비스 못지않게 요금 절감 등 다양한 혜택을 맛볼 수 있는 통신 요금제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황자인(27세) 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야속한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반복한다. 결국 그녀는 집 근처 대리점으로 향한다. 점원은 매달 부담하는 통신요금에 대해 물었고 무제한 요금제를 추천했다. 스마트폰으로 미국 드라마, 영화 등을 수시로 즐기던 그녀의 통신 요금이 예기치 않게 2만원 가량 낮아지는 순간이다.

출근길 또는 등·하교길에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 강의, 놓친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시청하는 고객이라면 이동3사의 무제한 요금제에 주목하자. KT는 현재 '완전무한 79/87/97/129' 4개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 뒤를 SK텔레콤(3개), LG유플러스(2개)가 잇고 있다.

가족, 연인 등 특정인과의 통화가 많은 사람은 망내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고려해보자. 이 요금제는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과의 통화가 무료로 제공된다. 통신 3사는 'T끼리', '모두다올레', 'LTE망내' 등의 이름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화량이 극히 적은 고객이라면 알뜰폰 업체가 제공하는 요금제에 관심을 갖자. 알뜰폰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도매 값에 빌려 요금을 낮춘 이동 통신 서비스로 통화 품질은 이통 3사와 동일하다. 알뜰폰을 통해 음성통화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인 0.9원에 이용할 수도 있고, 영화 티켓, 쇼핑 할인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CJ헬로비전, 이마트, 우체국 등 다양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을 하고 있고 조만간 KT와 LG유플러스도 알뜰폰 시장에 합류한다. /서승희기자 ssh814@



사랑의 집 고치기 대림그룹 내 건설 업종 관련 관계사 임직원 100여 명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개미 마을에서 독거 노인과 저소득층 가정 6곳에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을 하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역시 이공계가 대세

삼성그룹 합격자 분석

이공계가 삼성그룹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합격자 발표 결과, 이공계 출신이 주요 계열사마다 절대 강세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직군을 비롯해 연구개발, 설비, 기술, 영업마케팅, 경영지원, 디자인 등 7개 직군을 뽑은 삼성전자는 이공계 비중이 85%를 웃돌았다.

전자 부문 계열사인 삼성전기와 삼성SDI, 삼성SDS도 이공계 비중이 80~90%였다고 삼성 관계자들은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90%, 삼성물산은 80% 이상을 이공계가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그룹에서 인문계열이 비교적 많이 입사하는 계열사는 제일모직에서 패션사업부문을 인수한 삼성에버랜드와 호텔신라, 제일기획 등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은 올해 상반기 4000여 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kmlee@

코오롱·한솔 과징금 38억원

공정위, 폐수처리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 완주 폐수종말처리장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솔이엠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26억1700만원, 한솔이엠이가 12억4400만원이다.

이들 기업은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4월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찰자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한솔이엠이에 5억원을 줬다.

두 회사는 또 2010년 8월 '경기 이천시·가평군 하수처리장 사업', 2011년 5월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입찰 건에서도 담합했다.

이천·가평 사업에서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 한솔이엠이가 들러리였고 파주 사업에서는 반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투찰가격을 높이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며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주영기자 boa@

경제 살리기 세제개편 필요

대한상의 '2014년 개선 과제' 108건 건의

경제계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8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국회·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구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납세주체인 기업과 소통을 통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는 △성장동력 확충 △기업과세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등 3개 분야, 108개 과제를 모았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은 투자·R&D·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법인의 지방소득세 부담증가액은 연간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폐지는 지방이전이나 기투자금액 등에 대한 경과규정 조차 없어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현행 세법은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안전설비 투자시 투자금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일몰시한이 올해까지로 내년부터 지원이 사라진다.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성 조세에 대해서도 개편을 요구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기업 규모만 고려해 30~50%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안서비스업과 같은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업종도 타업종과 동일한 요건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동근 부회장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세수 확보가 쉽지않은 상황에서 복지수요는 늘고 있어 조세정책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조세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가 서울-방콕 노선 요금을 18일 공개했다.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 서울 ~ 방콕 취항

편도 요금 8만9000원… 플랫베드도 갖춰

에어아시아의 장거리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가 서울-방콕 노선에 본격 취항했다.

이번 취항을 기념하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꾼꾸뭇 씽하라 나 아유타야 주한 태국 대사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태국을 찾고 있다. 현재 태국은 정치적으로 과거보다 더 안정돼 있는 상태다. 한국은 태국인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이므로 양국 간의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는 태국 최초의 장거리 저비용 항공사다. 방콕을 기점으로 4시간 이상 떨어진 목적지에 가는 승객이 대상이다. 인천-방콕 노선에는 377석의 에어버스 A330-300이 투입된다.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는 이번 취항을 기념해 서울-방콕 노선의 편도 운임을 8만9000원으로 정했다.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의 나다 브라나시리 CEO는 "이번 취항으로 양국의 교류가 증진되고 우리가 그 가교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 "한국과 태국을 오가는 관광객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어아시아 엑스는 저비용 항공사이면서도 몇 가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비용 항공사 최초로 프리미엄 플랫베드 좌석을 갖췄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더 넓은 공간을 갖춘 '핫 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만 12세 이상 승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저소음 구역도 마련돼 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다양한 식사메뉴를 고를 수 있다.

한편 아즈란 오스만 라니 에어아시아 대표는 "아시아 단거리 노선만 운항하기에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이 필요했다. 2010년 출범 이후 고객서비스 면에서 일관된 정책을 취했다"고 밝히면서 "향후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의택기자 ferrari5@



올레샵에서 스마트폰 사세요 KT는 전국의 공식 인증 대리점이 올레샵에 직접 입점해 판매하는 '오픈샵'을 런칭했다고 18일 전했다. 오픈샵을 통해 구매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 아반트리 블루투스 헤드셋, 데이터 로밍 1만원권, 아이스크림 기프티쇼를 증정한다.

/KT 제공

ICT로 제 2 인생을 ~

SKT, 리스타트 창업자 모집

SK텔레콤이 정보통신기술(ICT)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SK텔레콤은 자사의 ICT기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브라보! 리스타트' 3기 창업자들을 새롭게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3기 공모는 과거 1~2기가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공모 자격을 전 세대로 확대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공모는 '행복창업지원센터(sktincubator.com)' 내 공모 페이지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9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1차), 면접심사(2차), 3박4일 워크샵을 거쳐 10월 말 3기 창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팀은 11월부터 6개월간 초기 창업지원금 2000만원과 함께 명동 소재 행복창업지원센터 개별 사무실, 전문가 멘토링 혜택을 받는다. 우수 아이템의 경우 SK텔레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김정수 SK텔레콤 CSV실장은 "브라보! 리스타트 3기는 지난 1~2기를 통해 축적한 다양한 성공 경험과 차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또 한번의 성공 창업 스토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39세 이하 청년사장 도와줍니다

다음 – 중기청 250억 규모 '청년창업 펀드'

포털 다음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다음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한다.

다음과 중소기업청은 18일 서울 한남동 다음 오피스에서 총 253억원 규모의 '다음 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다음 청년창업펀드의 목표 약정액은 253억원으로 다음이 100억원을 출자하고 모태펀드 예산 150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3억원은 운용사가 부담한다.

다음 청년창업펀드는 최근 모바일과 앱 등 차세대 IT산업 발달로 급증하는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다음 청년창업펀드의 투자 대상은 업력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자, 또는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이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주요 투자대상 기업은 다음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신규 플랫폼 사업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 인터넷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하는 기업, 오프라인 산업과 온라인 유통망을 연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IT와 모바일 기업들이다. /박성훈기자 zen@

'스마트 양말'로 간편하게 아기 돌보세요

글로벌 이코노미

미국 최첨단 유아용품 인기… 심장박동수·수면 패턴 등 스마트폰 전달




아기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스마트 양말'과 덮개형 유아용 카시트 '카쿤'. /BBC

아기의 심장박동수를 체크하는 '스마트 양말', 울음 소리를 분석해 주는 '엉엉 해독기'….

최근 영국 BBC 방송은 미국에서 스마트 유아 용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스마트폰 부모'를 유혹하는 최첨단 제품을 소개했다.

솔트레이크시의 신생 업체 '아울릿'이 선보인 스마트 양말은 아기의 한쪽 발에 기기를 채우는 형태다. 스마트 양말은 아기의 심장 박동수와 수면 패턴 등 건강 정보를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달한다.

아울릿의 제이콥 콜빈 대표이사는 "아기가 침대에서 뒤척이지 않고 잠을 잘 자는 지, 호흡에 이상은 없는지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며 "스마트 양말이 이런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턴에 위치한 또 다른 IT 벤처는 베이비 모니터 '미모'를 내놓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미모는 일체형 의상에 부착된 센서로 아기의 호흡과 피부 온도 등을 확인한다. 가격은 119파운드(약 20만원)다.

스마트 시트 '카쿤'도 인기다. 카쿤은 자동차가 충격을 받을 경우 덮개가 나와 유아의 시트 윗부분을 감싸도록 돼 있다. 아기가 누에고치처럼 생긴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가격은 499파운드(약 86만원)로 비싼 편이다.

젖병에 있는 우유를 아기가 얼마나 먹었는지 알려주는 '스마트 젖병'과 울음소리로 아기의 상태를 진단하는 울음소리 해독기도 눈길을 끈다.

소아과 전문의 라훌 코드하리 박사는 이와 관련, "유아를 돌볼 때 첨단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고 과학적이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눈을 맞추는 등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는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고참 엄마'는 '초보 부모'의 과소비를 우려했다. 육아 네트워크 회원 케이티 오도노반은 "아기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비싼 기계가 아이를 지켜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상술에 넘어가 수백 달러를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미국에서 스마트 유아 용품은 비싼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최근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아기 용품 시장은 오는 2018년 29억 달러(약 3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리커창 중국 총리, 영국 방문 영국을 공식 방문 중인 리커창(오른쪽) 중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경제협력 협의안에 서명한 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함께 웃으며 손뼉을 치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은 40억 파운드(약 24조원)규모의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AFP 연합뉴스

日 무역적자 23개월째 수출 15개월만에 감소

일본의 5월 수출이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18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5월 무역수지가 9090억엔 적자(약 9조 1000억원)로 집계됐다.

적자폭은 전달의 8089억엔 보다 늘어났으나, 시장 전망치인 1조1893억엔 보다는 작았다. 계절 조정된 무역수지는 8622억엔 적자였다.

이로써 일본 무역수지는 23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소비세 인상으로 올 2분기 경기 둔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최근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수출을 짓누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새 스마트폰에 악성코드 충격

이베이에서 유통… 중국산 드러나

악성코드가 탑재된 중국산 스마트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IT매체 폰아레나는 독일 보안업체인 G데이터 소프트웨어가 '스타 N9500'이라는 안드로이드폰에서 스파이웨어를 발견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마트폰 생산부터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사이트인 이베이에서 판매중인 N9500는 5인치 디스플레이에 미디어텍의 1.2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1GB 메모리, 듀얼 USIM 슬롯 등을 갖추고도 가격은 200달러(약 20만원)로 저렴하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스파이웨어는 해커가 개인 정보를 훔치거나 사기 전화를 걸거나 스마트폰 카메라와 마이크를 켤 수 있다. 도난당한 정보는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폰아레나는 "이베이에서 저가형 안드로이드폰을 찾던 도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 폰에 탑재된 스파이웨어는 전문적인 스파이활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

간통죄와 이혼소송



■칼럼
박민성 변호사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간통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타인과 성관계를 한 경우 상대방은 배우자 일방의 간통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형사고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은 배우자 일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여야 하고,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간통행위를 한 경우 그 간통행위에 대한 처벌 목적도 있디만, 그 외에 배우자 일방으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여러 사건 등을 통하여 형법상 간통죄에 대한 폐지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간통죄의 합헌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합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폐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간통죄 처벌조항의 존재는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간의 정조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문제는 단순한 법논리를 넘어서 우리나라 혼인생활, 성문화, 성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진 02)592-2224

IT Cafe

■ 파이브지티 정규택 대표

"생체보안 기술도 한류다"

얼굴인식 보안 솔루션으로 매출 50억 감성서비스에 북미 유럽서도 러브 콜



목소리, 지문, 홍채에 이어 얼굴이 생체인식 보안의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원천 기술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나왔지만 이 분야를 평정하고 있는 곳은 중국이다.

경쟁사보다 반값 수준의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토종기업이 있다. 창업 첫돌을 앞두고 있는 파이브지티다. ADT캡스 등 보안서비스로 유명한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타이코에서 연구개발소장을 역임한 정규택(사진) 대표가 세운 강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를 이룰 투자 적합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첨단 IT기술을 활용하면서 차세대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큰 물건을 만들고 있어서다. SK텔레콤에서 자본을 수혈받고 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50억원. 자신의 얼굴이 열쇠인 '얼굴인식 보안 솔루션' 장인인 정대표의 진정성 담긴 이야기를 들어봤다.

▶노인이나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집에서 인기가 좋을 것 같다.

▶▶비밀번호나 열쇠, 카드키가 없어도 문을 열 수 있다. 강도가 강제로 뒤에서 문을 열게 할 때도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면 곧바로 경찰이나 보안 요원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곧 갖춰진다. 강도의 얼굴이 촬영되기 때문에 예방범죄 효과가 크다.

▶지문이나 홍채 인식 방법도 있는데 얼굴인식 제품을 만든 이유는.

▶▶지문은 접촉식이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가 있고 손에 물이나 땀이 묻으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홍채 인식 기기는 판독 센서가 작아 역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잦고 가격이 비싸다.

얼굴인식의 경우 넓은 화면에서 적외선이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100만원대 초반의 비용이 낮은 건 아니지만 통신사나 보안업체와 협력한다면 50만원대로 낮출 수 있다.

▶쌍둥이, 또렷한 사진, 짙은 화장과 같은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가.

▶▶부모도 구분하기 어려운 쌍둥이가 아니라면 안심해도 된다. 적외선을 쏘기 때문에 밤에도 문제가 없고 얼굴이 아니면 아예 인식을 거부한다.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할 것 같다.



▶▶자동차, ATM, 컴퓨터, 주차장 등 지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감성서비스를 추가하려고 한다. 스마트폰 앱에 녹음과 메시지 전송 기능을 넣어 집에 들어갈 때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야간자습 중인 딸이 교실에서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라고 문자를 보내면 퇴근한 아빠가 대문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순간 동일한 메시지가 인식 단말기에 뜨는 방식이다.

▶글로벌진출 계획은.

▶▶북미나 유럽에서 우리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도 '독점권'을 달라며 언성을 높이고 있다. 'IT보안' 분야에서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코오롱 미술전시가 품은 디지털세상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지난 4월 중국 베이징 798 예술특구에서 '아트 한류' 붐이 일었다.

국내 소재 기업이자 글로벌 패션기업으로 도약을 노리는 코오롱과 유명 건축가 서을호 씨가 소속된 건축사무소 서아키텍스가 손잡고 진행한 미술 전시회 '인스파이어링 저니(영감 여행)'가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것이다.

열흘간의 전시 기간에 중국 현지인 4만5000여명이 방문했고 중국의 네이버로 통하는 '웨이보' 전시관련 이벤트에 50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한국의 또 다른 콘텐츠로 인정을 받았다.

이 전시가 주목받은 이유는 기존의 전시와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우선 소재의 활용. 코오롱이 만든 일회용 부직포가 주인공이다.

160장의 부직포를 겹겹이 쌓아 동굴처럼 만든 조형물 내부를 관람객이 천천히 걸어서 통과하며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다음 코스가 백미다. 부직포 동굴에서 살짝 '영감 여행'의 맛을 본 관람객은 첨단 IT기술이 장착된 디지털 시드월을 만난다.

대형 디스플레이와 여러 대의 태블릿PC가 설치된 디지털 시드월은 동굴에서의 자아찾기 여행의 의미를 디지털 가상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관람객은 태블릿 PC에서 각자의 아바타 인형을 만든다.



관람객이 디지털 시드월 앞에서 태블릿PC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고 있다. /코오롱 제공

옷, 헤어스타일, 모자, 가방, 안경을 취향에 맞게 꾸미는데 이때 관람객이 만든 아바타는 프린트된 상태로 해당 관람객에게 제공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중국 현지인들이 만든 4만5000여개의 아바타는 씨앗으로 변신한다. 다양한 나라에서 같은 전시를 열고 여기서 새로 생성된 아바타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꽃으로 태어난다.

즉 개개인이 만든 개성 넘치는 '또 다른 나'는 수많은 '또 다른 나'와 결합해 하나의 오브제로 완성되는 셈이다.

뻔한 전시, 늘 봐왔던 전시가 아닌 관람객이 참여해 주인공이 되고 그들이 모여 거대한 예술작품을 만드는 전시였기에 '아트 한류'가 가능했던 것이다.

단순히 감상만 하던 미술관이 IT와 만나서 듣고 만지고 교감하는 인터랙티브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상호작용을 하다보니 예술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건 덤이다.

TV를 예술 장르로 끌어들여 미디어아트를 창시한 백남준의 후예들은 여전히 낯선 것을 낯익게, 낯익은 것을 낯설게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IT 기술과 함께.

베이징이 바통을 넘긴 곳은 서울이다. 오는 27일부터 7월6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같은 이름의 전시가 열린다.

페이스북 "스냅챗 게 섰거라"

자기파괴 앱 '슬링샷' 오픈

페이스북이 지난해 인수에 실패한 스냅챗을 정조준한 서비스를 내놨다.

1대 1 메시지에 특화된 스냅챗과는 달리 그룹별 메시지 발송 등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은 사진·영상 메시지 서비스 '슬링샷'(www.sling.me)를 오픈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슬링샷은 사진과 15초까지의 영상을 빠르게 찍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후 테스트나 간단한 아이콘을 붙여 친구들에게 전송할 수 있다.

10대들에게 인기가 높은 스냅챗처럼 받은 메시지가 사라지는 기능도 들어있다. 하지만 메시지를 바로 읽을 수 있는 스냅챗과는 달리 답신을 보내야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를통해 커뮤니티 참여를 장려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1대 1 메시지 전송에 특화된 스냅챗은 나체 사진·영상·셀카 등을 주고받는 데 종종 악용돼 사회 문제가 돼 왔다"며 "이에 반해 슬링샷은 '음지에서의 1대 1 대화'가 아니라 '또래 친구들끼리 그룹 대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슬링샷 서비스는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익명성을 강조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국명기자 kmlee@

"휴가 떠나기 전 꼭 챙기세요"

올림푸스 '스타일러스 TG-3'

아웃도어 최강 카메라가 등장했다.

올림푸스한국이 아웃도어 카메라의 원조 'TG' 시리즈의 플래그십 모델 '스타일러스 TG-3 터프'(사진)를 18일 선보였다.

TG 시리즈의 최상위 기종인 TG-3는 수중 15m방수기능과 F2.0의 밝은 렌즈 등 전작인 TG-2의 장점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매크로(접사) 촬영 기능, GPS, 와이파이(Wi-Fi)와 같은 고급 기능을 대폭 강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전천후 아웃도어 카메라인 TG-3는 수중 15m 깊이에서의 완전 방수는 물론 2.1m 높이에서의 충격방지, 영하 10도에서도 작동하는 방한 기능을 갖췄다. 강력한 방진 기능으로 모래밭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화질도 고급 DSLR 못지않다. F2.0의 밝은 렌즈는 전작보다 향상된 1/2.3인치 1600만 화소의 트루픽 VII 화상 처리 엔진과 결합해 최상의 화질을 제공한다. /이국명기자

해외 자유여행 꼼꼼 체크하세요

전년보다 해외 자유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이번 여름 휴가 시즌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여행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여행 중 돌발상황에 직접 대처해야 한다. 이에 하나투어(대표 최현석)가 휴가철을 맞아 자유여행객들이 자주 겪는 곤란한 상황을 정리하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팁을 소개했다.



하나투어, 여름휴가 대비 자유여행 팁 소개

◆항공권 확인은 사전에 꼼꼼하게

먼저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는 비행기를 타지 못한 경우다.

하지만 다행히 탑승객의 실수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항공권 규정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또 기존 항공권을 환불하고 새 항공권을 예약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특가 항공권은 날짜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어 항공권의 취소·예약 변경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공 스케줄이 출발 당일에도 변경될 수 있어 항공사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연착 등 항공사의 귀책 사유로 항공기를 놓친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호텔 제공과 대체 항공편을 마련해준다.

◆현금, 여권 등은 직접 소지해야

비행기 수하물이 분실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수하물이 다른 지역으로 갔거나 경유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이때에는 도착지 항공사에서만 수하물 확인이 가능하다.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 번호나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크해야 한다. 수하물이 확인되면 여행객이 수령할 수 있는 곳으로 전달되며 그동안 필요한 생필품 구입으로 지불한 비용 등은 항공사에서 보상해준다. 그래도 현금·여권 등 중요한 물품을 직접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오버부킹되면 다른 숙소로 대체

여행 중에는 호텔이나 호스텔 등이 수용 가능 인원의 120%까지 예약받는 오버부킹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정보다 숙소에 늦게 도착하거나 투숙 예정일에 체크인을 못하면 오버부킹으로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숙소에서 기존 숙소와 등급 혹은 상위급으로 숙소를 대체해준다.

한편 하나투어는 자유여행 브랜드 '하나프리'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별 비자·매너·문화 등의 여행 팁을 소개하고 있다. 또 자유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을 위해 해외여행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HANA SOS'를 운영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올 여름 비엔나로 놀러오세요~"

비엔나 관광청, 한국 시장 론칭 행사 개최

비엔나 관광청이 한국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비엔나 관광청은 한국 시장 진출을 기념해 최근 서울 삼성동 더 베일리하우스에서 '김소희 셰프와 함께하는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비엔나 관광 소개 프레젠테이션과 비엔나 요리 쿠킹쇼로 구성됐다.

먼저 르네 브루너 비엔나 부시장과 노버트 케트너 비엔나 관광청 디렉터가 직접 비엔나의 관광 명소를 소개했으며 김 셰프는 비엔나 전통 요리와 함께 다양한 비엔나 와인을 선보였다.

르네 브루너 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다. 매년 비엔나를 찾는 한국인이 늘고 있으며 비엔나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여행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의 특색 있는 매력을 모두 맛볼 수 있는 비엔나가 한국인이 즐겨찾는 여행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해충막는 식물 모음전 홈플러스는 20일부터 전국 139개 점포에서 해충 퇴치 식물 모음전을 진행한다. 가격은 단품이 4000원, 2입 세트는 7000원이다. /홈플러스 제공

40% 할인… 럭셔리 호텔에서 휴가를

아코르 앰배서더 호텔, 23일부터 '글로벌 슈퍼세일'

아코르 앰배서더 코리아는 전국 10개의 아코르 앰배서더 호텔과 전 세계 2200개 이상의 아코르 호텔이 모두 참여하는 '글로벌 슈퍼세일'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최대 40%의 객실 할인과 무료 조식이 제공되며 비회원도 3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다.

또 국내를 비롯해 유럽 1634개, 아프리카 60개, 미주 지역 115개, 아시아퍼시픽 지역 444개 등 5개 대륙에 위치한 호텔 중 자신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호텔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지금 글로벌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해도 기존 회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텔 예약과 회원 가입은 아코르 호텔 홈페이지(www.accorhotels.com)와 앰배서더 호텔 홈페이지(www.ambatel.com)에서 가능하다.

한편 숙박 기간은 7월부터 8월말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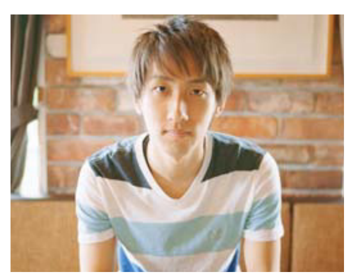
문의: 00798)8521-2018

/황재용기자

나오키상 수상 작가 '아사이 료' 방한

국제도서전에서 시사회·대담회 등 독자와 만남 행사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는 22일까지 열리는 '2014 서울국제도서전'에 맞춰 소설가 아사이 료(사진)를 초빙해 21일, 22일 양일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사이 료는 2009년 대학 재학 중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로 스바루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으며 2013년 '누구'로 남성 최초로 최연소 나오키상을 수상한 작가다.

21일에는 그의 소설을 영화화한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의 시사회와 함께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된다. 22일에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동시대 한일작가 대담회와 사인회가 열린다.

대담회에는 '이만큼 가까이'로 지난해 창비장편소설상을 수상한 정세랑 작가가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홈페이지(http://www.jp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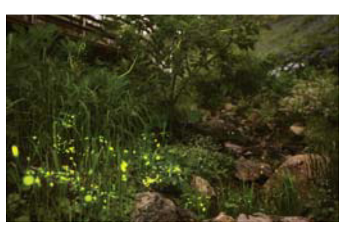
곤지암 화담숲, '반딧불이 이벤트' 선봬

청정 자연 산책하며 직접 관찰 기회 제공

곤지암 화담숲이 '2014 곤지암 반딧불이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벤트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9~11시까지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화담숲 반딧불이원에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2㎞에 이르는 산책로에서는 숲 해설가가 반딧불이의 성장 과정과 생태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들려준다.

이벤트 참가 신청은 LG서브원 곤지암리조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화담숲은 일일 700명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을 예정이다.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자연환경 복원과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숲으로 2009년부터 국립공원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반딧불이의 서식환경 복원사업을 진행해 반딧불이 자생에 성공했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돼지양념 1+1'

시흥점·신림점, 양념구이 등 덤 증정 행사
쇼핑몰, 한돈너비아니 등 최대 5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기원하며 국민들을 응원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이벤트를 벌인다.

시흥점은 7월 11일까지 주중에 매장에서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양만큼 나갈 때 동일 메뉴를 무료로 포장해준다(정식류·세트류·해피아워 제외). 술래·강강·한돈·돼지양념구이 포장상품도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이벤트'도 벌인다.

신림점은 7월 4일까지 매장에서 술래양념구이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더 주는 '2+1 덤 증정행사'를 진행한다.(해피아워/정식류 제외)

이달 말까지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X3박스)를 반값인 1만8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50gX10봉)는 40% 할인된 3만6000원에 파격 할인 판매한다.

무더위와 응원에 지친 고객들을 위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세트(800㎖·5팩·15인분)는 3만8800원에 최대 28% 할인 판매하며, 선착순 50명에게 '미켈란젤로전' 티켓(1인2매)을 선물로 준다.

베스트셀링 메뉴인 강강양념(520g)과 돼지양념(500g), 한돈양념(500g), 한우불고기(500g)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도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정영일기자

이색 아이템 캠핑 즐기자

아웃도어 열풍과 함께 늘어나기 시작한 국내 캠핑 인구는 약 300만명으로 매년 10% 이상 꾸준히 늘어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캠핑시장 규모도 2008년 2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500억원으로 543%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캠핑 열기와 함께 기존의 '밥 먹고 자고 오는' 식의 단조로운 캠핑 문화가 다양한 키즈 캠핑 아이템으로 이색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장난감 브랜드 '너프(NERF)'는 '너프 르벨'(사진)은 여자 아이들도 야외에서 스타일리시하게 슈팅놀이를 즐길 수 있다. '너프 르벨 가디언 크로스보우'는 너프 블라스터 고유의 에어 펌프 기술과 '석궁' 디자인의 절묘한 조합으로 남자아이들 못지않게 파워 넘치는 게임을 즐기는 여자아이들에게 적합하다.

여름철 무더위를 날리기엔 물놀이가 제격이다 '슈퍼소커'는 물놀이의 진수를 알려줄 필수 아이템으로 가압식 물통을 채용해 기존 제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고 사거리와 정확도도 월등하다.

캠핑용품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인 텐트는 최근 아이와 어른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는 알록달록한 색감에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기능과 룩(look)을 모두 갖춘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코오롱스포츠는 최근 1979년 인디언들의 노마드 라이프스타일에서 착안된 A텐트에 디자인 그룹 스티키몬스터랩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티메티 레트로 A텐트'를 출시했다. /정영일기자



<합성첨가물> <국산 원료>

'0' '100%' 식품 소비자 유혹

건강·웰빙영향 경쟁 제품과 차별화 공략

최근 식품업계에 100% 국산 원료와 합성첨가물 '0'을 강조한 제품들이 대세다. 웰빙과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

농협홍삼 한삼인의 경우 100% 국산 원료만 사용해 경쟁사 제품과 차별화 한 홍삼음료를 연이어 선보였다.

최근 출시한 '한삼인 아이홍삼'은 어린이 연령별로 제품을 3단계로 나눠 몸에 좋은 자연약재를 첨가한 홍삼농축액으로 홍삼뿐만 아니라 모든 한약재를 국내산으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착한홍삼 키즈엔' 역시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권할 수 있는 어린이음료라는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사과·포도·배 과즙으로 맛을 냈다.



농협홍삼 한삼인의 '아이홍삼'과 '착한홍삼 키즈엔'

풀무원건강생활이 올해 초 출시한 유산균음료인 '식물성유산균 치아씨드'는 합성착향료, 합성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다. 지난달 선보인 '아임리얼 키즈 스무디'도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다.

일화는 지난달 설탕과 색소·인공첨가물을 넣지 않고, 천연 레몬과 상쾌한 라임향을 첨가한 탄산수 신제품인 '초정탄산수 라임'을 선보였다. 웅진식품의 '톡 보리사이다'도 100% 국산 보리를 사용한 무카페인 탄산 음료로 주목받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힘내라 청춘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기말고사 기간인 대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깜짝 이벤트로 18일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19일 연세대학교, 20일 동국대학교에서 각각 1000개의 도넛을 증정하는 '힘내라 청춘' 응원 캠페인을 벌인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제공

여성 생애 주기별 필수 건강 정보 발표

이대여성암병원, 초경 맞는 10대부터 관리 필요

여성의 신체는 생애 주기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하지만 변화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검진과 진찰로 이상을 발견하기도 만만치 않다.

이에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여성 건강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대여성암병원이 연령대별 위험 질환과 건강 검진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다.

◆정기 검진 통해 질환 치료해야

먼저 청소년기인 10대에는 생리 불순이 가장 흔한 여성 질환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지만 오래 지속되면 호르몬 과다에 따른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또 10대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를 예방해야 한다.

20대부터는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시기라 건강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쏟아야 한다. 부인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특히 가임기의 여성은 질염 등 감염 질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30대에는 갑상선 기능 검사, 유방암 검사 등 특정 질환과 관련된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중년기로 접어드는 40대에는 자궁근종과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때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리통과 증상이 비슷한 자궁근종은 증상이 악화되면 자궁을 적출해야 하기 때문에 검진을 통한 치료가 동반돼야 한다.

갱년기에 속하는 50대와 60대는 폐경을 맞는 시기다. 두 번 이상 월경이 건너뛰면서 월경 간격이 60일 이상이 되면 폐경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폐경이 되면 안면 홍조나 건망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요실금이나 변실금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주웅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는 "여성들은 무엇보다 빠르고 이른 검진이 중요하다"며 "중년과 노년에 접어든 후 호르몬의 영향으로 겪는 여성 질병은 정신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꼭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비핸즈카드 제공 (제품번호:BH2137)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랭키닷컴-랭킹순위란? 최근 12주간 랭키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 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은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뮤직 페스티벌, 이렇게 입으면 시선 한몸에…

락은 '짧고 선명하게', 재즈는 '크롭', 일렉·힙합은 '형광으로 반짝'

바야흐로 '뮤직 페스티벌'의 계절이다. 낭만적인 재즈부터 신나는 락·힙합까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음악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런 열기는 8월까지도 계속 될 전망이다.

뮤직 페스티벌의 라인업 만큼이나 페스티벌 패션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페스티벌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자유롭고 에너지 넘치는 축제를 찾는 이들을 위해 음악 스타일에 따른 패션 팁을 소개한다.



/폴스미스, 티쏘, 휴고 제공







/베네통, 베카앤벨, 스타타스 제공



◆젊음의 락 페스티벌… '짧고 튀게'

락 페스티벌에서의 패션은 활동하기 편하면서 시선을 사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자. 옷차림은 최대한 가볍게 연출하는 것이 좋은데 얇은 티셔츠에 핫팬츠를 매치하는 게 무난하다. 다소 밋밋할 수 있지만 독특한 패턴이나 색감이 선명한 제품을 고른다면 티셔츠와 팬츠만으로도 시선을 끌 수 있다.

여기에 레오파드(표범무늬) 패턴의 시계와 가죽 팔찌 등을 함께 겹쳐 착용하면 남다른 패션 센스를 뽐낼 수 있다.

◆로맨틱한 재즈 페스티벌… '크롭'

여성스러운 꽃무늬 패턴과 크롭 셔츠는 재즈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룩이다.

특히 플라워 패턴의 스커트와 허리가 드러나는 오렌지 색상의 크롭톱은 여성미를 강조하며 로맨틱한 스타일로 연출 할 수 있다. 반대로 상의에 플라워 패턴이 적용된 것을 입는다면 짧은 기장의 숏팬츠를 함께 입어 자유분방하면서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이런 스타일에 화려한 액세서리는 너무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디자인의 시계만 간단히 매치하는 것이 좋다.

남성들은 도시적이고 모던한 스타일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기하학적인 패턴의 청록색 셔츠와 빈티지 왁싱 팬츠을 매치하고 올 여름 유행인 카무플라주(얼룩덜룩한 보호색)패턴의 스니커즈를 착용하면 편안한 감성을 뽐낼 수 있다.

◆힙합·일렉 페스티벌… '펑키'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일렉 페스티벌에서는 보기만 해도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펑키한 스타일을 연출해보자.

형광색의 디테일이 들어간 원피스는 여성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느낌을 준다.

여기에 광택의 에나멜 소재가 포인트인 시계와 선명한 색감이 특징인 팔찌를 착용하면 반짝이는 패션을 선보일 수 있다. 일렉 페스티벌인 만큼 편안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가벼운 샌들로 마무리하면 펑키한 매력의 일렉 페스티벌 룩이 완성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안티에이징' 1대1 맞춤 뷰티 서비스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안티에이징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안티에이징 산업에 대한 소비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지출여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의 81.8%가 안티에이징 관련 부문에 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티에이징 비용은 1인당 연평균 206만4000원이었는데 특히 피트니스·피부 클리닉 활동 비용은 70만9000원으로 화장품 부문(38만4000원)을 제치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세대를 불문하고 여성들이 안티에이징에 관심을 가지면서 안티에이징 케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안티에이징 제품 출시가 대부분 이었다면 최근에는 일대일 뷰티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 후 몸 상태에 맞춰 약을 처방 받는 것처럼 각 개인의 몸매와 피부 상태에 맞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안티에이징의 첫 걸음은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것이다.

하이폭시(사진)는 하복부 지방 감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코치들이 몸매 뿐 아니라 식습관 등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일대일로 지도해주는 운동법이다.

최근 리뉴얼 오픈한 VB 다이어트랩에서는 과학적으로 구성한 약 8000여 가지의 솔루션을 조합해 개인의 상태에 맞는 일대일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의류용 쿨링 스프레이 동아제약(대표 신동욱)은 여름 무더위를 날려 줄 신개념 의류용 쿨링 스프레이 '셔츠쿨(ShirtCool)'을 출시했다. 에탄올과 L-멘톨 성분으로 구성돼 옷에 뿌리면 냉감(冷感)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1회 사용으로 약 1~2시간 정도 냉감이 지속된다. /동아제약 제공

샌들의 과감한 진화

플랫폼·스트랩·웨지힐 등 선택폭 다양



/슈스파 제공

초여름인 6월 여성들의 옷차림 역시 과감하고 시원스런 복장으로 바뀌고 있다.

올 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 키워드의 중심에 서 있는 스포티즘의 영향 덕에 이와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로 무장한 샌들이 선보이고 있다.

하이힐에서부터 굽이 높지 않은 플랫 슈즈, 통굽 스타일, 웨지힐(밑창과 굽이 연결된 형태의 여성용 구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샌들 전성시대다.

올 여름은 플랫폼 샌들과 슬리퍼 슈즈가 대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중성적인 디자인에 발등을 덮는 두꺼운 일자 스트랩이나 푹신한 플랫 스타일의 굽에 메탈릭 소재와 비즈·단추 장식으로도 다채롭게 보일 수 있다. 캐주얼한 팬츠 및 스커트와 함께 매치하기 쉬워 데일리 슈즈로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발과 각선미를 가장 섹시하게 보여주는 스트랩 샌들은 여름철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이다. 아무리 플랫 스타일의 신발이 유행한다 하더라도 높은 힐을 고집하는 여성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테디 셀러 아이템인 웨지힐은 이번 시즌 더욱 다양해진 디자인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메탈릭 트렌드를 반영한 골드·실버 색상부터 위빙 기법이 적용된 제품까지 감각적인 분위기를 한층 강화했다.

굽 높이도 다양해졌다. 밑창 전체가 편평한 플랫폼 스타일부터 10㎝를 넘는 킬힐 스타일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김학철기자

metroentertainment E

“대중·아티스트 인정받는게 우선”

한층 부드럽고 섬세한 음악으로 돌아왔다.

R&B의 여왕 거미(33)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사랑 이야기를 풀어낸 미니 2집앨범 ‘사랑했으니… 됐어’로 4년 만에 컴백했다. 타이틀곡 ‘사랑했으니… 됐어’에 담긴 ‘헤어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걸’ ‘그러려니 끄덕거릴 그런 일일뿐이야’라는 애절한 노랫말이 귓가를 맴돈다.

◆강렬함보다 감성발라드

2003년 1집 ‘라이크 뎀’으로 데뷔해 ‘눈꽃’ ‘죽어도 사랑해’ ‘그대라서’ ‘미안해요’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그대 돌아오면’ 등의 히트곡을 만든 거미는 강렬하면서 보이시한 매력의 소유자로 인식돼 왔다. 그의 노래에서 묻어나는 애절함과 노랫말이 겹치면서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번 타이틀곡 ‘사랑했으니… 됐어’는 부드러운 도입부를 거쳐 후반부로 갈수록 강렬해지는 멜로디와 가창력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변신을 예고했다. 다소 무거운 R&B표 발라드를 절제하고 감성발라드를 담았다.

“실제 밝고 여성스러운 성격이지만 표현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앨범을 준비하면서 욕심이나 부담을 버리고 즐겁고 재미있게 작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성장했고 제 자신과 대중 모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진실성이 담긴 음악을 하고싶은 마음도 컸죠. 이번 앨범에 고스란히 담았어요.”

그의 바람은 통했다. 미니 앨범 음원 공개 후 수록된 6곡 모두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대중과 아티스트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특히 앨범이 공개됐을 때 ‘거미 실망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며 “새로운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싱어송라이터 보다 노래 잘하는 가수

이번 앨범에는 거미의 자작곡 ‘놀러가자’와 ‘사랑해주세요’가 수록됐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닌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과거에도 앨범에 자작곡을 많이 실었다. 다만 조명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작사 작곡은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하고 싶지만 싱어송라이터로 불리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하면 되고 곡을 쓰는 사람은 곡을 잘 쓰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작곡 ‘사랑해주세요’는 축가를 위해 쓴 노래이기도 하다. 당초 ‘사랑해주세요’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마음을 담은 슬픈 가사의 곡이었다. 이런 곡이 사랑 이야기로 바뀐 데에는 ‘축가’가 한 몫 했다. 거미는 “평소에 축가 부탁이 많이 들어오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노래를 해야 했다”며 “그래서 결심한 것이 내 곡으로 축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적이고 사랑하는 노래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새 둥지 다양한 변화 예고

2001년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를 만나 가수생활을 시작한 거미는 지난 2013년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전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소속 아티스트가 배우라는 점에서 궁금증이 커졌다. 씨제스에는 배우 이정재와 설경구, 강혜정, 최민식 등 연기파 배우들이 소속돼 있다. 가수 영입은 JYJ이후 거미가 두번째다.

“가수 이외에 도전해 보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 바로 연기에요. 연기와 노래는 진심을 담아야 한다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소속사에 연기파 배우분들이 많아서 섣불리 도전할 수 없지만 준비가 되고 기회가 찾아오면 꼭 해보고 싶죠.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다면 영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연아 역을 맡아보고 싶어요.”

이뿐만이 아니다. 거미는 데뷔 후 처음으로 어쿠스틱 콘서트도 준비중이다.

오랜만에 국내 활동에 나선 거미는 “가장 단출하게 밴드를 구성해 공연을 하려고 준비중”이라며 “그렇다고 2시간 동안 발라드만 부르는 건 아니다. 재미와 감동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디자인/최송이

‘사랑했으니… 됐어’로 4년 만에 컴백한 **거미**

부드럽고 섬세한 음악으로
축가 위해 자작곡 만들어
연기 한 번쯤 도전하고파 ”



검찰, 노희영 CJ 고문 수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노희영(51·사진) CJ그룹 브랜드전략 고문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고문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인 '히노 컨설팅펌'을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4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소득세 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고문은 레스토랑 '궁' '호면당' '마켓오' '느리게걷기' 등 여러 레스토랑 사업을 기획하며 외식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떠올랐다. 지난 2012년부터 올리브TV '마스터셰프 코리아'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월드컵 첫경기 연예계 거리로…

싸이·'무한도전' 붉은악마들과 응원

연예계 스타들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응원에 동참하면서 브라질 날씨만큼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경기가 치러진 18일 오전 연예인들은 국가대표 선전을 위해 응원에 나섰다. 개그맨 유재석과 강호동은 서울 광화문에서 축구 국가대표 서포터스 클럽인 붉은악마와 함께 거리응원을 펼쳤다. 가수 싸이는 서울 강남에서 축하공연을 열었다. 또 다른 연예인들은 이색공약을 내걸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각양각색 응원전을 펼쳤다.

◆대중 속으로, 거리응원

유재석과 강호동은 이날 각각 MBC '무한도전', KBS2 '우리동네 예체능' 팀과 함께 광화문을 찾았다. 유재석은 '무한도전 응원단' 후발대인 박명수·하하·손예진·정일우·지상렬 등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 올라 '승리의 시간'과 '빅토리 송' 등을 불러 대한민국 승리를 염원했다. 강호동은 '우리동네 예체능'의 윤두준·이기광·이정·이덕화·서지석 등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 응원하며 경기를 관람했다. 또 싸이는 강남 영동대로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공연을 펼쳤다. 그는 '라잇 나우' '젠틀맨' '강남스타일' 등 히트곡을 이어가며 영동대로 한복판을 후끈 달궜다.

◆ SNS서 응원 열기 이어

바쁜 스케줄로 거리 응원에 참석하지 못한 스타들은 소셜네트워크로 응원을 이어갔다. 걸그룹 베리굿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 러시아전 응원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베리굿은 붉은 티셔츠를 입은 채 태극기와 북, 부부젤라 등 응원 도구를 들고 있다. 멤버 수빈은 "베리굿이 브라질에 있지는 않지만 현장 못지않게 뜨겁게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컴백을 앞둔 AOA는 공식 트위터에 "굿모닝 여러분, 다들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 첫 경기 응원해요. 우리나라 선수들 화이팅♡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슈퍼주니어 강인과 레인보우 멤버 현영은 각각 붉은 티를 입고 찍은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방송인 오상진은 경기가 중계되고 있는 TV 화면을 촬영해 올리기도 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특설무대에서 무한도전 응원단이 한국의 첫 승을 기원하며 시민들과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시청률 20% 명동 프리허그"

KBS2 '트로트의 연인' 출연진 흥행 약속

KBS2 새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 출연 배우들이 시청률 공약을 내걸었다. 20%가 넘으면 명동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성록은 프리허그 공약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 작품에서 샤인스타 기획사 대표 조근우 역을 맡았다. 그는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파이팅 넘치게 시청률 20%를 희망한다"며 "명동에 출연 배우를 다 데리고 가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현우는 "오히려 제작사에게 물어보고 싶다. 20% 넘으면 뭘 해줄 거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작품에서 안하무인 최고 스타인 장준현 역을 연기한다.

신보라는 태진아 대표의 참여를 추천했다. 그는 이날 "프리허그 공약을 실현할 때 태진아 대표도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다.

'트로트의 연인'은 대중과 친숙한 트로트를 소재로 트로트에 인생을 건 최춘희(정은지)가 트로트를 경멸하는 장준현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는 로맨틱코미디 드라마다. 오는 23일 첫 방송. /전효진기자



열린 KBS 월화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지현우(왼쪽부터)·정은지·이세영·손호준·신보라·신성록. /손진영기자 son@

channel

매주 토요일 밤 11시

연애전당포

"사랑은 끝나고 감정만 남았다"



'브로맨스' 드라마가 뜬다

'개과천선' '정도전' '닥터이방인'… 남남콤비가 남녀 로맨스 추월

최근 드라마 속 재미 요소로 '브로맨스'가 뜨고 있다. '브로맨스'는 영어 '브라더'와 '로맨스'의 합성어로 남성 간의 매우 친근한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MBC '개과천선'은 기억을 잃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변호사 김석주(김명민)의 이야기다. 보통 시련을 겪는 남자 주인공 곁엔 주로 여자 주인공이 있지만 이 드라마엔 '절친' 박상태(오정세)가 있다.

박상태는 어린 시절부터 로펌까지 줄곧 김석주와 함께해 온 인물로 김석주의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다. 모든 관계에 계산적이었던 김석주가 진심을 다해 대한 이는 박상태가 거의 유일하다. 김석주는 박상태의 도움으로 조각난 기억을 맞춰 나가고 있다.

두 사람이 한 앵글 속에서 티격태격하며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은 진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드라마의 작은 재미다. 시청자들은 시청률 부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조기종영 철퇴를 맞은 '개과천선'에서 유일하게 건진 것은 "'개천요정' 오정세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극에도 브로맨스가 존재한다. 조선 건국기를 그린 KBS1 '정도전'은 이성계(유동근)와 이방원(안재모)이 정도전(조재현)을 두고 펼치는 대립은 신선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이성계는 정도전을 "삼봉 아우"라고 부르며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다. 또 반대의 목소리에도 정도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으로 그에게 큰 힘을 실어주며 사극판 브로맨스를 보여줬다. 정도전의 활약이 두각을 나타낼수록 이방원의 심기는 불편해져만 간다. 특히 한양 천도 축하연 때 이방원은 질투심에 휩싸여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한다. 이방원이 훗날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정도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시청자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정도전'이 흥미진진한 전개를 이어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출연진의 뛰어난 연기력과 치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연출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한편 '메디컬 첩보 멜로'를 내세웠던 SBS '닥터 이방인'은 멜로만 강조됐을 뿐 복합 장르물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박훈(이종석)이 첫사랑 이름 '송재희'만 불러댄다고 시청자들로부터 쓴 소리를 듣기까지 했다. 이에 한 관계자는 "앞으로 박훈과 한재준(박해진)의 대립 구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히며 브로맨스 대열 합류를 예고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개과천선' /MBC


'정도전' /KSB


'닥터이방인' /SBS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사극 블록버스터 빅3 여름접수

'군도' '명량' '해적' 일주일 간격 개봉 확정

올 여름 사극 블록버스터 기대작 빅3가 일주일 간격으로 관객과 만난다.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해적')이 8월 6일로 개봉일을 확정했다. 앞서 하정우·강동원 주연의 '군도: 민란의 시대'는 다음달 24일, 최민식·류승룡 주연의 '명량'은 다음달 30일로 개봉일을 결정 했다.

'해적'은 조선 건국 보름 전 고래의 습격을 받아 국새가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찾는 해적과 산적, 그리고 개국 세력이 벌이는 바다 위 대격전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다. '댄싱퀸'의 이석훈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초호화 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김남길·손예진을 비롯해 유해진·이경영·오달수·김태우·박철민·신정근·김원해·조달환·이이경·설리 등이 출연한다.

손예진은 해적단 여두목 여월 역을 맡아 고난도 액션 연기를 보이며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는다. 김남길은 산적단 두목 장사정 역으로 연기 변신을 시도한다. 산으로 간 해적인 철봉 역의 유해진은 개성 넘치는 유해진표 코믹 연기로 웃음을 자아낸다.

배급사는 "'해적'은 제67회 칸영화제 필름 마켓에서 15개국에 판매되며 해외에서 먼저 오락성을 인정받았다"면서 "개성 넘치는 캐릭터 조합이 펼쳐낼 흥미진진한 스토리, 화려한 검술과 와이어 액션, 압도적인 스케일로 전세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탁진현기자

부성애 진하게 담은 액션스릴러

film review

/탁진현기자 tak0427@

'테이큰'과 설정 비슷 전개 방식 달라

■ 홈프론트

은퇴한 비밀 요원 필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조용한 마을로 이사 한다. 그러나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못된 소년을 응징하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필은 소년의 부모와 마을 범죄 조직의 주목을 받는다. 이후 요원이라는 정체가 탄로나자 위험에 처하고 딸마저 납치된다.



기본적인 설정이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 '테이큰'과 비슷하다. 요원 출신인 아버지가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는 점에서다. 둘 다 부성애를 소재로 한 액션스릴러다.

그러나 뼈대만 비슷할 뿐 전개 방식은 다르다. '테이큰'이 딸을 구하기 위한 아버지의 액션에 초점을 맞췄다면 '홈프론트'는 액션보다는 진한 부성애에 무게를 뒀다. 가족애가 강한 한국 관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다. 극 중반까지 딸과의 일상을 주로 보여주고, 후반부터 주인공의 활약을 본격적으로 그린다.

화려한 제작진과 출연진을 자랑한다. '록키' '람보' '익스펜더블'의 각본과 제작을 맡은 할리우드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이 제작자로 참여했다. 주인공 필 역은 '트랜스포터' '분노의 질주'로 유명한 제이슨 스타뎀이 맡았다. 마약 제조업자 게이터 역의 제임스 프랭코, 게이터의 연인 셰릴 역의 위노나 라이더 등 조연진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작품의 완성도와 오락적인 재미가 부족해 아쉽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 번져 목숨을 건 대결을 벌이게 된다는 줄거리부터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설정 탓인지 딸을 지킨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는 주인공 빼고는 나머지 인물들의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기대를 모았던 액션도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

영화 등급은 청소년관람불가다.

빈·뉴욕 오페라 공연 국내 극장서

메가박스 '프린스 이고르' '카프리치오' 개봉

빈 국립오페라극장과 뉴욕 메트로폴리탄오페라극장의 공연을 국내 스크린에서 편하게 감상할 기회가 마련됐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는 21일 메트오페라 '프린스 이고르'를, 다음달 5일 빈국립오페라극장의 '카프리치오'를 영화로 개봉한다.

'프린스 이고르'는 12세기를 배경으로 러시아에 침입한 타르타르족의 공주와 타르타르족에게 포로로 잡힌 이고르공의 아들 드미트리의 사랑 이야기다.

러시아 국민음악 운동의 선구자인 알렉산드로 보로딘이 작곡한 곡을 코르사코프와 글라주노프가 무대에 올렸다. 드라마틱한 줄거리에 러시아 민속음악과 교회음악의 선율이 어우러져 러시아의 역사와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코엑스·센트럴·목동·킨텍스·동대문 등 5개 지점에서 상영된다.

'카프리치오'는 마들렌 백작부인의 총애를 사기 위해 경쟁하는 작곡가인 플라만트와 시인 올리비에의 이야기다.


오페라 '프린스 이고르'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 슈트라우스의 마지막 작품이다. 음악과 문학을 상징하는 두 남자 주인공의 경쟁을 통해 '음악과 문학 중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 르네 플레밍이 출연한다. 코엑스·센트럴·목동·킨텍스·해운대·광주·대구·대전·전주 등 9개 지점에서 상영된다.

메가박스 프로그램팀 나유경 팀장은 "오페라 '프린스 이고르'와 '카프리치오'는 그 명성과 작품성에 비해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웠다"며 "유럽과 미국을 대표하는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된 최신 작품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탁진현기자

눈칫밥 먹는 주제에 상추쌈까지…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상추쌈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장 한국적인 정서의 음식이다. 예전부터 농부의 밥상에서부터 구중궁궐 대왕대비의 수랏상에도 올랐다. 신분의 높낮음을 떠나서 누구나 상추쌈을 즐겨 먹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상추쌈을 좋아했는지 고려 때는 원나라에까지 소문이 났다. 지금은 퇴색한 용어가 됐지만 가히 한식 세계화의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쌈 싸먹기를 좋아한다. 영조 때의 실학자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조선 사람은 커다란 잎사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쌈을 싸먹는다고 했을 정도다. 상추를 비롯해 호박잎, 배춧잎, 깻잎과 곰취는 물론 미나리, 쑥갓, 콩잎으로도 쌈을 싸 먹는다. 김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초 역시 쌈 싸먹는 재료로 빠지지 않았으니 우리는 유별나게 쌈을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상추쌈이다. 성호 이익은 집집마다 상추를 심는 까닭은 쌈을 먹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니 조선시대에 벌써 상추쌈은 국민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상추쌈은 한입 가득 싸서 볼이 메어져라 먹어야 제 맛이다. 때문에 점잖은 체면에는 먹기 어려웠을 것 같지만 왕실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도 상추쌈을 즐겼다. 승정원일기에 숙종 때 대왕대비인 장렬왕후 수라상에 상추가 올랐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조리를 하지 않았으니 쌈을 싸먹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어지는 내용은 실수로 상추에 담배 잎이 섞여 들어갔으니 담당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숙종은 그럴 것까지 없겠다며 용서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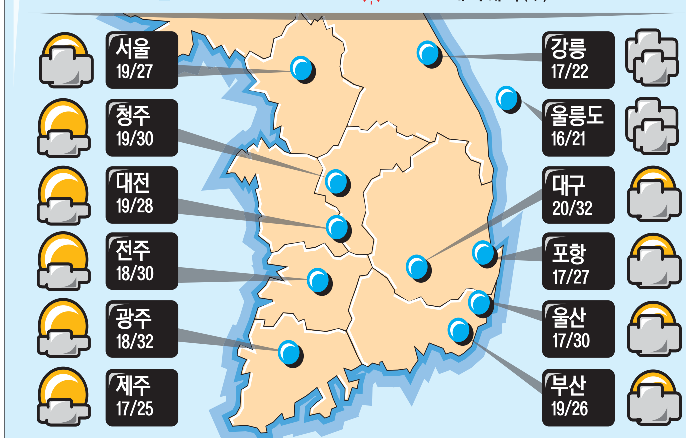
순조의 장인으로 세도정치를 시작한 김조순 역시 상추쌈을 즐겼다. 여름날 불암천에 천렵을 가서 갓 잡은 생선회를 안주 삼아 술 한 잔 기울이며 상추쌈에 밥을 싸먹었다는 글을 남겼다.

이렇게 왕실 최고 어른부터 막강한 세도가는 물론 농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추쌈을 즐겼다. 우리의 상추쌈 사랑은 속담에서도 확인된다. "눈칫밥 먹는 주제에 상추쌈까지 먹는다"는 말이 그 말이다. 상추쌈이 맛있는 계절이다. /음식문화평론가

날씨

6/19 木 일출시각 05:11 일몰시각 19:5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이불이나 쿠션 속에는 천식의 원인이 되는 집 먼지 진드기와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환기를 자주하고 집안 습도관리를 통해 천식을 예방해야 합니다.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중소기업 나와 창업 잘될까요 화공계통 준비하면 성공 가능

hynin 남자 69년 4월 11일 밤 11시경

Q 김상회 선생님의 '사주속으로'가 저의 주변 분들에게도 답답함을 풀어 주시는 고민해결의 장이 되고있어 고맙습니다. 외삼촌의 사주가 궁금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시는데 사장노릇을 해야 겠다면서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될는지 궁금합니다.

A 생일이 관고(官庫:직업의 창고)에 있어 공업성(工業星)으로 화공계통의 창업을 한다면 운이 발복합니다. 다른 분야라면 회사를 차려도 회사에 다니는 것만큼 편하지 않고 피로하므로 창업을 권장 할 수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하고 사주를 알면 하늘이 두렵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외삼촌은 '구름에 가린 태양'과 같은 성정으로 수완이 뛰어나고 마음속에는 무궁한 지혜와 모사가 숨어 있습니다. 2014년 기운이 왕성해지는 시기라 말려도 뜻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잘 처신 하는 일면이 있으니 음력8월까지 기다려 보라고 하십시오. 떠 있는 마음이 진정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 접을까 하는데요 직장생활 2년후 창업이 좋아

복바치 여자 80년 6월 24일 점심때

Q 저의 딸인데 올해 35세 6월 24일생 양력입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는 한 달에 한건도 중개를 못하고 있어 개점휴업상태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인지 또는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서 안 되는지 걱정입니다. 더 이상 안 된다면 접으려는데 어찌 좀 나아 질 수는 있나요?

A 여자사주 무토(戊土)가 여름에 태어났으니 양인격(羊刃格:양의 뿔과 같이 성미가 강함)에 양팔통(陽八通:양으로만 된 사주팔자)인데 백호살(白虎殺:흰 호랑이)의 생일이므로 중성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당해도 쓰러지는 예가 없으며 접으라고 해도 고집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음력 6월이 되면 경제상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니 손실이 발생돼도 일단은 접고 직장생활을 2년만 하다 하십시오. 그러면 융통성이 생기고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부동산관련업은 천직이 될 수 있으며 2016년 에는 재물이 생하는 시기가 되어 투자자도 나서게 됩니다. 그 후 창업을 하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3	8		9					2
7	5		3			6		
				5	3		8	1
				9				
9	7		8	1				
		3			4		9	6
6					5		4	8
1								

		2	4					
						6	1	
	1	6		3	2		4	
2			3	9		7		
		8				9		
		7		8	6			3
	2		1	7		3	8	
	9	5						
					8	4		

스도쿠 정답

2	1	9	5	6	7	8	3	4
3	8	6	9	4	1	5	7	2
7	5	4	3	2	8	6	1	9
4	6	2	7	5	3	9	8	1
8	3	1	4	9	6	2	5	7
9	7	5	8	1	2	4	6	3
5	2	3	1	8	4	7	9	6
6	9	7	2	3	5	1	4	8
1	4	8	6	7	9	3	2	5

7	8	2	4	6	1	5	3	9
4	3	9	8	5	7	6	1	2
5	1	6	9	3	2	8	4	7
2	5	1	3	9	4	7	6	8
3	6	8	7	1	5	9	2	4
9	4	7	2	8	6	1	5	3
6	2	4	1	7	9	3	8	5
8	9	5	6	4	3	2	7	1
1	7	3	5	2	8	4	9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신점[神占] 운세 6월 19일 (음 5월 22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48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한 하루~. **60년생** 나설 때 망설이면 후회한다. **72년생** 물러 날 땐 확실히 물러나야 효과~. **84년생** 가족이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소 **49년생** 흑백 너무 따지면 피곤해진다. **61년생** 구름속의 달의 형국이라 답답~. **73년생** 생각도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긴다. **85년생** 오지랖 넓으면 상처만 받는다.

호랑이 **50년생** 여유 있을 때 베풀어라. **62년생** 최선을 다하면 하나를 주고 열을 얻는다. **74년생** 부모에 좋은 소식을 전해 기쁘구나. **86년생**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 이긴다.

토끼 **51년생** 과음은 후회만 남긴다. **63년생** 이성의 유혹에 잘 대처하라. **75년생** 영업사원은 지는 것이 남는 장사가. **87년생** 준비 없이 새 일을 맡으면 쩔쩔맨다.

용 **52년생** 선행은 조용히 할 것. **64년생** 명분 없는 싸움엔 승자나 패자나 딱하긴 마찬가지다. **76년생**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88년생** 예사롭지 않는 귀인을 만난다.

뱀 **53년생** 예상대로 일은 풀린다. **65년생** 들러리 서는 자리는 나서지 말라. **77년생** 모든 일을 직접 챙기면 심신만 피곤하다. **89년생** 주변의 눈치 봐가며 개성 발휘할 것.

말 **42년생**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라. **54년생** 생각도 못한 이득이 생긴다. **66년생** 어려움 참고 견디면 희소식 듣는다. **78년생** 직장인은 꽃놀이패를 들고 행복한 고민~.

양 **43년생** 크게 웃을 일이 생긴다. **55년생**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라. **67년생** 갑자기 고마워할 사람이 생긴다. **79년생**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는 이성 경계할 것.

원숭이 **44년생** 배우자가 성질나게 해도 참아라. **56년생** 틀을 깨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 **68년생** 오늘만큼은 그동안 못했던 말을 하라. **80년생** 신변에 좋은 변화가 있다.

닭 **45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는 것이 좋다. **57년생** 문서 일은 심사숙고할 것. **69년생**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은 일어나 희망을 본다. **81년생** 편안한 일만 찾지 말라.

개 **46년생** 어려울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58년생** 지나친 자기 비하는 옳지 않다. **70년생** 기회가 왔을 때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라. **82년생** 박수 받을 일이 생긴다.

돼지 **47년생** 중용을 지키는 게 무난하다. **59년생**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71년생** 자기 과신은 위험 자초한다. **83년생** 구인을 만나 잠자던 꿈이 꿈틀~.

‘주급 3만원’ 육군병장 희망포 쐈다



18일 브라질 쿠이아바 판타나우 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 후반전 이근호가 선제골을 넣은 후 이청용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근호 불운 털고 월드컵 첫골… 러시아전 1-1 주역

FIFA WORLD CUP Brasil

연봉 178만 8000원인 육군 병장 이근호가 큰일을 냈다.

이근호는 18일 브라질 쿠이아바의 아레나 판타나우에서 열린 한국과 러시아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 후반 11분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은 지 12분 만에 강력한 중거리슛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홍명보호의 ‘특급조커’ 이근호(29·상주 상무)가 마침내 월드컵 불운을 훨훨 털어냈다.

1-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 결승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홍명보 감독이 남은 경기에서 다양한 공격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이 골은 굴곡진 축구 인생을 살아온 이근호의 지난 설움을 날려 준 한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5년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해 프로 무대를 밟은 이근호는 2년 뒤 국가대표에 발탁되며 승승장구를 달렸다. 2010 남아공 월드컵 예선에서 맹활약하며 허정무호의 ‘황태자’로 부상했지만 급격한 컨디션 난조로 본선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유럽 진출 실패로 흔들렸던 이근호는 마음을 다잡고 울산 현대에서 맹활약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았고 지난해 아이티,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에서 연속골을 넣으며 확실한 눈도장까지 받았다.

거수 경례 세리머니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근호는 현재 육군 병장 신분이다. 그의 연봉은 178만8000원으로 이번 대회 최저 연봉 득점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 출전선수중 세계 최고의 몸값(742억원)을 받고있는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연봉은 이근호의 4만 배 이상 많다.

또 이날 이근호의 강력한 중거리슛을 막지 못한 러시아의 골키퍼 이고르 아킨페프의 연봉은 이근호의 연봉보다 1만8000배 높은 305억원이다.

서형욱 MBC 해설위원은 경기 뒤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 언론인 여러분, 이근호 병장의 주급은 3만원입니다. 유로나 파운드가 아니고요. 이번 대회 최저 연봉 득점자 컨펌 기사 내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고보니 94년 월드컵에서 군인 신분으로 골 넣었던 서정원(현 수원 블루윙즈 감독) 당시 선수의 급여는 훨씬 더 낮았겠네요"라고 덧붙였다.

이근호는 경기 뒤 취재진과 만나 "원래 동료에게 패스를 할 생각이었는데 운이 좋았다. 슈팅 연습을 할 때 받았던 좋은 느낌이 갑자기 떠올라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했다"며 "설움을 떨치는 상상이 현실이 됐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내 골이 결승골이 못 돼서 아쉽다. 알제리전에는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결의를 보였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승점 5도 16강 장담 못해

알제리와 난타전 예상

승점 1을 얻은 대표팀은 23일 포르투 알레그레의 베이라히우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알제리전에서 승리해야만 16강 진출을 위한 경우의 수를 따질 처지가 된다.

32개국이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는 시스템에서 2승(승점 6) 이상을 거두는 것이 16강 진출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승1무1패(승점 4)를 기록할 경우 경쟁국의 성적에 따라 조 2위가 결정된다. 한국은 2006년 독일 대회와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모두 1승1무1패를 했지만 남아공 대회 때만 16강에 올랐다.

1승2무(승점 5)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한 조에 3팀이 1승2무를 기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첫 경기를 치른 H조에서는 벨기에가 예상대로 승점 3(1승)으로 앞서가고 한국·러시아가 1점(1무), 알제리가 0점(1패)으로 뒤를 잇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전력 판도와 승점 현황을 볼 때 알제리에 승리해야만 16강에 희망을 걸 수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다급한 처지에 놓인 알제리에게 승리를 거두기란 쉽지 않다. 한국에 지면 무조건 16강 탈락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다득점이 필요한 상황이라 두 팀의 경기는 난타전이 예상된다. 골 결정력을 높이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유순호기자



멕시코 골키퍼 기예르모 오초아가 브라질의 협공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AP 연합뉴스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네이마르 막아낸 거미손 오초아

멕시코 골키퍼 선방 브라질에 0-0

세계 최강의 브라질이 멕시코에 또 한번 약점을 드러내며 힘겹게 승점 1점을 챙겼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18일 브라질 포르탈레자 카스텔랑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크로아티아와 카메룬에 각각 승리를 거둔 브라질과 멕시코는 승점 4를 기록하며 조 1·2위를 유지했다. 브라질이 월드컵 본선 첫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지 못한 것은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다.

2012 런던 올림픽 결승에서 정예멤버끼리 맞붙어 멕시코에 금메달을 내준 브라질은 또 한번 멕시코에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브라질은 세계적인 스타 네이마르를 앞세워 공세를 펼쳤지만 멕시코의 강력한 5백 수비와 기예르모 오초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오초아는 슈퍼스타 네이마르를 누르고 이날 경기의 최고 스타로 떠올랐다. 오초아는 브라질의 강력한 공격을 수 차례 선방하며 세계 축구팬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전반 25분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때린 헤딩슛이 골망을 가르는 것으로 보였지만 골라인을 넘기 직전 오초아의 손에 걸렸다. 브라질은 전반 43분에도 멕시코 수비진의 실책으로 완벽한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이번에도 오초아의 선방에 막히며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다.

후반 22분 네이마르는 강하게 왼발 슈팅을 날렸지만 오초아는 가슴으로 막았다. 후반 40분 치아구 시우바가 노마크 상황에서 날린 헤딩 슈팅도 오초아의 손에 걸렸다.

오초아는 이날 경기의 최우수 선수인 '맨 오브 매치'로 선정됐다.

세 번째 출전한 월드컵에서 마침내 주전 자리를 꿰찬 오초아는 3년간 몸담았던 AC 아작시오와 결별해 현재는 무적 신세이지만 전 세계 축구인과 팬들이 지켜본 이날 경기에서 화려한 선방쇼를 보여 월드컵 이후 수 많은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우루과이·잉글랜드 '벼랑 대결'

월드컵 프리뷰

일본·그리스도 16강행 막판 승부

20일에는 명예회복에 나서는 남미와 유럽의 축구 명가 우루과이와 잉글랜드가 배수의 진을 치고 맞선다. 1승식을 먼저 챙긴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는 C조 1위 자리를 놓고 대결한다. 1패를 안은 일본의 16강 진출 여부가 가려질 2차전도 열린다.

◆콜롬비아-코트디부아르(1시·마네 가힌샤 국립 주경기장)

같은 날 그리스와 일본이 무승부하면 콜롬비아와 코트디부아르 경기의 승자는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짓는다.

콜롬비아는 1차전에서 그리스를 맞아 월드컵 본선 사상 최다 점수 차 3-0으로 승리했다. 전력의 핵심인 라다멜 팔카오가 부상으로 월드컵에 불참했지만 하메스 로드리게스, 후안 콰드라도 등이 나서는 공격은 매서웠다.

사상 첫 16강 진출을 노리는 코트디부아르는 디디에 드로그바의 선전을 또 한번 기대한다. 36세인 드로그바는 일본전에서 후반 교체 멤버로 투입돼 경기 흐름을 일거에 바꿔놓으며 베테랑의 진가를 입증했다. 이번 경기에도 후반전 교체 투입이 예상된다.



우루과이의 에디슨 카바니가 코스타리카전에서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있다. /AP 연합뉴스

◆우루과이-잉글랜드(4시·코린치앙스 경기장)

D조 시드 배정국인 우루과이는 1차전에서 코스타리카에 1-3으로 덜미를 잡히면서 '죽음의 조'에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우루과이의 간판 골잡이 루이스 수아레스의 빈자리가 컸다. 2013-201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수아레스는 지난달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몸 상태가 완전하지 못해 개막전에 나오지 못했다. 수아레스는 우루과이 언론에 "몸 상태는 100%"라고 자부하며 출전을 기다리고 있다.

이탈리아에 1-2로 패한 잉글랜드도 피할 수 없는 일전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다. 잉글랜드는 웨인 루니의 부활을 기대한다. 루니도 조국의 16강 진출 디딤돌을 마련하는 동시에 월드컵 본선에서 이어지던 부진을 털어낼 기회로 벼르고 있다. 루니는 세 차례 연속 월드컵에 나섰지만 아직 월드컵 본선에서 골 맛을 보지 못했다.

◆일본-그리스(7시·두나스 경기장)

1패씩을 안은 두 팀의 벼랑끝 대결이다.

일본은 가가와 신지가 부진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다. 가가와는 1차전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섰지만 슈팅 기회를 잡지 못하는 등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2004년 유럽축구선수권 우승팀인 그리스는 예선 10경기에서 4골밖에 내주지 않는 막강한 수비력을 보였지만 1차전에서 3골을 내주며 체면을 구겼다. 그리스는 코스타스 미트로글루, 이오아니스 페트파지디스가 골 침묵을 깨길 기대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알제리전 '갓영표'에 물어봐

월드컵 이모저모



이영표(사진) KBS 해설위원의 예언이 월드컵 시청자들에게 오싹한 전율을 선사했다.

이영표 위원은 18일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에 앞서 결과를 예상했고, 그의 말대로 이근호가 첫골을 기록했다. 이영표 위원은 이에 앞서 스페인의 몰락,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2-1 승부, 일본의 코트디부아르전 1-2 패배 등을 예측해 모두 맞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

이영표 위원은 러시아전을 앞두고 "촘촘한 러시아 수비벽을 깰 무기가 이근호 선수"라고 예상했다.

선제골이 터지자 이영표 위원은 "제가 두 달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까? 정말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말하며 "저 지금부터 예측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고, 조우종 캐스터는 "이제 예측하지 마세요"라고 흥분하며 맞장구쳤다.

이영표 위원은 이 같은 능력에 '표스트라다무스' '문어표' '갓영표' 등의 별명을 얻었다.

◆"손흥민 헤드폰 상표 가려"

손흥민의 헤드폰이 국제축구연맹(FIFA)의 시선을 잡았다.

러시아와의 경기를 위해 선수단 버스에서 내린 손흥민은 검정 테이프가 붙은 헤드폰을 착용하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헤드폰 제조사의 로고가 붙어 있는 자리를 가린 것이다.

FIFA는 지난 2월 브라질의 플로리아나폴리스에서 워크숍을 열어 이번 월드컵에서 하지 말아야할 사항을 각국 축구협회에 공지했는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애용하는 헤드폰도 '금지 항목'에 포함됐다.

헤드폰에는 제조 업체의 로고가 크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앰부시 마케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게 FIFA의 취지다.

프로야구 전적 18일

■잠실

L G	000	201	511		10
두산	104	000	120		8

△승 = 정현욱(2승 2패) △세 = 봉중근(3패 11세이브) △패 = 이현승(3승 2패) △홈런 = 이병규 3호(7회4점·LG) 칸투 17호(8회2점·두산)

■문학 <연장 10회>

삼성	350	010	000	1	10
S K	201	002	301	0	9

△승 = 임창용(4승 1패 14세이브) △세 = 김희걸(1패 1세이브) △패 = 진해수(2패) △홈런 = 최형우 17호(2회3점) 이승엽 14호(10회1점·이상 삼성) 박정권 10호(7회3점·SK)

■광주

넥센	301	401	002		11
KIA	200	020	000		4

△승 = 밴헤켄(8승 4패) △패 = 김진우(2승 2패) △홈런 = 강정호 20호(1회3점) 윤석민 4호(9회2점·이상 넥센)

■마산

롯데	000	000	002		2
N C	230	000	00X		5

△승 = 찰리(5승 3패) △세 = 김진성(1승 2패 11세이브) △패 = 송승준(3승 8패)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한여름밤
부드러운 처음처럼
HAPPY SHAKE!
흔들어 마시는 물이 좋은 소주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